

한교연 “불법적 WEA 총회 개최 시도, 중단하라”

성명 통해 WEA 고위 인사들 문제 지적하며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가 “불법적인 WEA 서울총회 개최 시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WEA 총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교연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복음주의권에서 WEA 총회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얼마 전 내년 WEA 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

회 출범식이 있었다”며 “WEA 총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가 WEA의 복음주의 정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WEA 고위인사들과 모의해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내년 WEA 서울총회는 절대 불가함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WEA는 진보성향의 WCC를 추종하지 않는 복음적 인사들이 결성한 세계적인 복음운동 기구다. 지금도 각 대륙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순수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대륙별 복음주의 운동을 하나로 묶어 승화시켜야 할 위치

에 있는 WEA가 본연의 복음주의 정신에서 이탈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지금 한국교회 보수권에서는 WEA를 WCC와 동격으로 여기거나 그보다 못한 배교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 WEA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과 전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들 외에도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등 복음주의의 독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 WEA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의 실태”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자들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자주 드나들며 주로 큰 교회를 찾아다니며 WEA 서울총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매우 사사롭고 불법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모두 반기는 분위기라면 이들이 WEA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 목회자들을 몰래 접촉해 의사 타진을 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WEA라는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WEA를 자진해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으로 실추된

WEA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총회보다 급선무임을 밝힌다”며 “그런 후에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된다면 한국교회 전 구성원이 환영해 마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들과 은밀히 연합해 WEA 서울총회 개최를 모의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WEA 정회원인가, 아니면 WEA에 어떤 공헌이라도 했는가. 무슨 자격으로 WEA 총회를 유치하고 무슨 근거로 조직위원회를 출범했는지 한국교회 앞에 낱말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들과 부화뇌동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이들이 오늘날 WEA를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라는 불법예외의 굴레를 씌워 망가뜨린 주범이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공모했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교연은 “만에 하나 성과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다 사분오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마당에 복음주의까지 분열하게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 모든 책임을 이 일을 은밀히 추진한 인사들이 져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 성혁명 내용들로 가득”

수기총 등, 규탄집회 개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표 이선규 목사) 등 18개 단체는 2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사거리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교육 구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주최의 유네스코 교육 국제 포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유네스코와 함께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참여자 1,000여명 규모로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유네스코교육포럼)을 개최한다”며 “유네스코 교육은 국제기구가 승인한 선진국형 교육으로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따라야 할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실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한 성혁명 내용들이 근간을 이룬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는 성혁명 교육 요소를 담고 있는 목표 다수가 있다”며 “3번 ‘건강과 웰빙’에는 성과 재생산이 들어 있어서 낙태를 조장할 수 있으며, 4번 ‘양질의 교육’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를 정당화하는 포괄적성교육, 성평등, 성인지교육 등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번 ‘성평등’에는 젠더주의 교육이 들어있으며 전통적인 가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10번 ‘불평등 완화’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포함해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 반대를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혁명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SDGs 17개를 2030년까지 이루려는 것이 유엔과 유네스코 교육의 목표”라며 “성혁명교육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조차 금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서, 전체주의적 이념이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 다수 선진국 교육을 오염시켜 그 나라 미래세대를 망치고 있는 성혁명교육의 해악을 직시해 온 깨어난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에서 이 반윤리·반성경적인 성혁명 교육을 강력히



수기총 등 18개 단체가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교육 구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주최의 유네스코 교육 국제 포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지속 전개해왔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대거 포함돼 있던 성혁명교육을 구원하는 유네스코 교육을 반영한 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며 “이 유네스코 교육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법성을 가진다”고 했다.

특히 “이 교육이 도입되면 분별력이 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극히 유해한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이 무분별,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또한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은

타고난 천부적 인권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우리 부모들은 이 망국적인 유네스코 성혁명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행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바 없고,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기총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유네스코교육포럼을 개최해 국내에 확산시키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혁명교육 배제를 결정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발표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남성 AIDS 감염자의 약 56%, 동성 간 성접촉... 위험성 알려야”

한가협, 질병관리청 ‘2023년 HIV/AIDS 신고현황’ 분석 자료 발표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년 HIV/AIDS 신고현황’을 분석 요약해 대한민국의 HIV/AIDS 감염 현황에 대해 알리고 HIV/AIDS 감염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신규 HIV/AIDS 감염자수는 1,005명으로, 2022년 1,066명에 비해 5.7% 감소했으나 2021년의 975명에 비해선 여전히 증가한 수치이다. 신규 감염자 중 남성이 903명으로, 전체의 89.9%를 차지한 반면 여성 신규 감염자는 102명으로 10.1%에 그쳐 감염자의 대다수가 남성에게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8.7%(288명)와 30대 35.4%(356명), 40대 15.7%(158명) 순으로 나타나 2-30대가 전체 신규 감염인의 64.1%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감염자 중 56.7%는 동성 간 성접촉을 주요 감염 경로라고 응답했으며, 여성 감염자는 모두 이성 간 성접촉이 감염 경로라고 답했다. 마약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은 0.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의 HIV 신규 감염인은 2022년 대비 5.7%(61명) 감소했다. 이 중 내국인은 9.2%(76명) 감소했으나 외국인인 6.2%(15명) 증가했다”며 “외국인 감염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 감염인 50% 감소 목표를 향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가협 관계자는 “감염자 대다수가 남성에게 집중돼 있고 남성 AIDS 감염자의 약 56%는 동성 간 성접촉을 주요 감염 경로라고 응답한 사실은 남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또한 “10대 신규 감염자가 12명으로 적은 수가 집계됐지만, 2-30대의 발병이 의료기관이 63.4%(637명), 보건소가 28.3%(284명)였다. HIV 검사를 한 동기는 자발적 검사의 경우가 32.1%(228명)로 가장 많았고, 감염경로는 99.6%(664명)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특히 남성 감염자 중 56.7%는 동성 간 성접촉을 주요 감염 경로라고 응답했으며, 여성 감염자는 모두 이성 간 성접촉이 감염 경로라고 답했다. 마약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은 0.4%로

- 이승현 목사, 한기부 대표회장에 취임 >> 3면
- “교회음악 본질은 가사의 메시지 ‘극대화’ >> 12면
- 김영국 목사 “예배 음악의 멘토: 다윗” >> 22면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7천여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다



아기 예수 탄생 현장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구성했다. ©Pixa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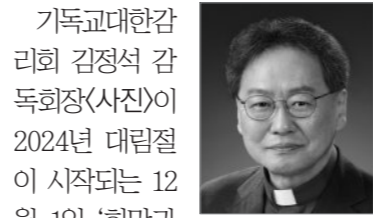
12월 1일부터 성탄절 전 4주간

12월 1일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부활절 전 40일, 곧 사순절과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기독교인들은 대림절 기간 동안 구원자로 예수 탄생의 의미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다. 서양에서 대림절의 개념은 '대림절 달력'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사회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대림절 달력의 아이디어는

독일에서 시작됐다. 이후 루터교 국가와 미국으로 퍼졌고,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점차 일반화되었다. 대림절 달력은 편의상 12월 1일에 시작된다. 첫 번째 대림절 달력에는 성경의 장면과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차 세속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대림절은 기독교 교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전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생각은 동일하다. 대림절은 모든 신자와 가족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이 도래함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김진영 기자

김정석 감독회장 “희망과 기쁨, 동행의 성탄 되길”

2024 성탄절 메시지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사진)이 2024년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1일 '희망과 기쁨, 동행의 성탄 되길'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감독회장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요 1:14)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성탄의 기쁨이 온 인류 위에 넘쳐나길 소망한다”며 “무엇보다 성탄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곧 인류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날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장 큰 선물을 보내신 날”이라며 “지금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눅 2:14)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인류에 평화'를 안겨주는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곧 살

림(שלום)의 은총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와 온누리에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과 역사는 바뀌어도 성탄의 의미는 한결같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다”며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인류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아픔, 고통, 절망, 불안 등이 점철된 어두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난과 차별로 인한 소외를 겪으며 신음 속에서 매일의 삶을 겨우 견디는 이들이 많다.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곧 인류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날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장 큰 선물을 보내신 날”이라며 “지금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눅 2:14)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인류에 평화'를 안겨주는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곧 살

해 가족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은 소망과 기쁨의 소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마 1:23, 눅 1:31)을 확증한다. 아픔과 힘든 삶을 살아가며 사회의 곳곳에 스며든 갈등과 불신 등으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하루하루가 고달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각종 화재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비롯해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웃음을 잃은 이들도 적지 않다”며 “그런가 하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웃음을 잃은 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새로운 소망이며 기쁨

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신 아기 예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나아가 이번 성탄은 이웃과 동행함으로써 기쁘고 복된 의미가 더해지기를 축복한다. 한 해 동안의 험거운 삶에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비록 선교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등대'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2024년 성탄이 '희망을 안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웃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야”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꾸꾸는 나비행동(살롬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무리없는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을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 사람은 없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의 법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우선한다”며 “현대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

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또 “민주당이 1심 징역형 선고를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과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수단으로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는 3권 분리에 대한 취지에 벗어난 것이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과 감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며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정권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위기에 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오늘날 정국 혼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국정체신을 하고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정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우리사회에 공평한 추(錫)와 저울로 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본(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정치가와 공직자들에 대하여 정의 구현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명하는 의에 입각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나경원 의원의 등록동거혼제 입법 추진 강력 규탄”

기공협 “잘못된 사실 기반해 시류 영합... 동성 결합 문호만 열 것”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력 규탄했다. 기공협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의원 나경원 의원은 최근 '혼외자 스캔들'로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에 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동성간 결합을 위한 문호만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여 시류에 영합한 나경원 의원의 치고 빠지기식의 가벼운 입법 의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우성처럼 비혼 출산(소위 사생아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겠다고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한 프랑스 등록동거혼(PACS) 제도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기공협은 “우선 프랑스 등록동거혼(PACS) 제도는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

동거혼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틀렸다”며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10년 54.9%에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65.2%까지 이르렀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2.03명 이후 이후 꾸준히 계속 떨어져서 2022년에는 1.79명까지 떨어졌다.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면 출산이 증대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는 혼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결혼조차 부담스러워 비혼 결합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출산을 감행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한 사실은 프랑스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생활동반자법)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보호처는 결혼한 가정”이라며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도록 유도해 주어야지, 등록동거혼제를 합법화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앞 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프랑스의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62.2%가 비혼 출산 아이(사생아)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은 한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인 두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포르노, 성매매, 사촌결혼, 마약, 동성결혼 등이 일찍부터 합법화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한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 기 상애와 등으로 인해 성육리가 무너진 유럽 국가 등에서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출산율을 핑계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다. 기공협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행복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비혼 출산 아이의 행복을 위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 준 나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 발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네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유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이승현 목사, 한기부 대표회장 취임 “부흥의 불씨 일으킬 것”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열려

사전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일 경기도 안양시 마포동에 위치한 제56대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가 이임했고, 이승현 목사(한성교회 담임)가 제5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먼저 성두현 목사(상임회장)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송창호 목사(교육회장)가 기도했고, 신상규 목사(총무)의 구호제창과 최현민 목사(교육총무)의 성경봉독, 한성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엄기호 목사(증경회장)가 “부흥사의 사명(스가라 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오늘날 점점 신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 능력을 입어 성령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 취임하신 대표회장님을 중

심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조 목사(지도자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조주원 목사(선교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2부 이취임예배에선 먼저 작전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다. 박 목사는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과 영적 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신임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가 작전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양명환 감독(증경회장)의 격려사와 이필재 목사(성회본부장)의 대표회장 약력 소개 후 박승주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승현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문화가 정치와 교계에 팽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내

어 하나남게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다.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은 서로 반목하고 분열된 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본이 되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미스비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로 나아가겠다”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에도 발맞춰 변화하고 발전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의 역할을 다해 한국교회와 해외 교회의 목회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데 앞장서겠다”며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부흥회 및 회원간의 영적 교류와 분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촌 낙도의 어려운 곳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부흥회로 섬기는, 찾아가는 부흥회를 하자”며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간에 강단을 교류하며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겸손한 자세로 분회를 섬기며,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도록 본이 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요셉 목사(한교연·세기총 증경 대표회장), 송일현 목사(이사장), 강풍일 목사(증경회장), 이용규 목사(증경회장), 정여균 목사(증경회장) 등의 격려사 및 축사가 있었고, 각 교단 및 단체들이 이승현 신임 대표회장에게 축하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조주원 목사(선교회장)가 사회를 본 3부 특별기도회에선 유무한 목사(상임총무)가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를 위해, 이광택 목사(상임부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우순 목사(성회총무)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여한연 목사(기회회장)



이승현 신임 대표회장(오른쪽)이 작전 대표회장인 박승주 목사(왼쪽)에게서 협회기를 넘겨받아 흔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가 부흥사들의 영적 각성과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김동호 목사(총사업본부장)가 사회를 맡은 4부 나눔의 시간은 윤보환 감독(증경회장)의 ‘새출발’을 위한 축복기도, 대표회장을 비롯한 증경대표회장 및 실무위원들의 축하케이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제56대 신임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University of Edinburgh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상임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세례식에서 안수하고 있다.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702명 대상 세례식 진행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지난 1일 주일예배에서 702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했다. 세계로교회는 “공단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3,5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며 “이는 손현보 목사가 부임한 1993년 당시 30여 명의 출석 성도 수에 비해 30년 만에 약 100배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교회의 이 같은 성장의 비결로는 평신도가 중심이 된 전도특공대 활동이 꼽힌다. 매주 화요일 오전, 약 200명의 성도가

자발적으로 모여 부산과 인근 김해, 창원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다.

교회측은 “올해는 10.27 연합예배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

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했다”라며 “성도들은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향해 지속적인 만남과 초청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복음전파의 본질적 사

역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올해 702명이 세례를 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로교회는 교육부서 및 교구사역을 담당할 교역자(목사) 2명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shb712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051-831-7123). 김진영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 교육 SUFL 15기 수료식 성료

지난 12월 1일 저녁 9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프로라이프 교육프로그램인 Stand Up For Life(SUFL) 15기 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SUFL운영자인 장기영 사무총장(이대서울병원 내과)은 모든 과제를 완료한 9명의 참가자를 프로라이프 빌더로 임명하고 각 지역의 생명 지킴이 운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교회를 다녔지만 낙태가 죄악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통해 낙태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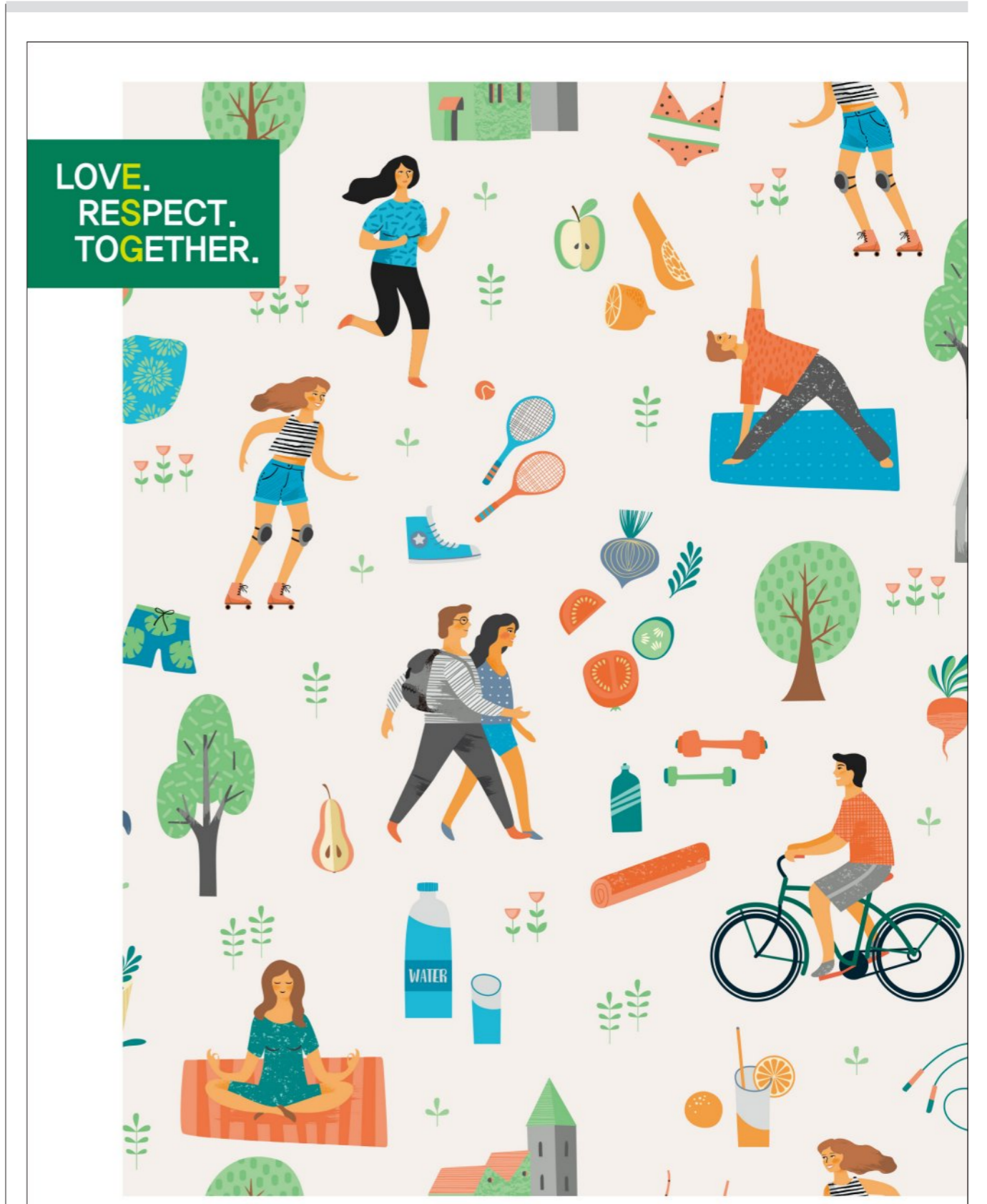
이어 “태아생명을 살려주세요라는 피

켓팅 활동 가운데 태어났던 네 명의 자녀를 더욱 사랑으로 품을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또한 낙태법안의 공백으로 낙태가 더욱 허용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며 낙태가 상업화의 도구가 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회 안에서 낙태가 묵인되는 현실을 걱정하며 교회에서 낙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인들끼리도 ‘고담엄부’의 내용을 보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 낙태하는 것이 낫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생명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한 참가자는 41살에 임신했을 때 노산이라 여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과 낙태를 고려했다고 고백하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안도를 했다. 비기독교인이지만 자신의 권유로 참여한 미혼 여성은 낙태가 여성과 아이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알게 됐다. 다음 가을에 남자 친구와 그리고 낙태를 경험했던 다른 친구와 함께 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다음 학습은 2025년 3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서울신대 2024년 성탄 트리 점등식 개최

“그리스도의 빛이 되자” 축사 속 희망 메시지 전해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가 최근 본관에서 2024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캠퍼스에 성탄의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는 시설관리과 이종화 주임의 사회로 시작해, 김성원 교목처장의 기도와 황덕형 총장의 축사 후 트리 점등 및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축사를 전한 황덕형 총장은 “매년 점등식을 진행하면서 이 기쁨을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

게 감사하다”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길 바라며, 더욱 더 한국교회와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점등식에서 공개된 성탄 트리는 본관 2층에 설치됐으며, ‘Merry Christmas Jesus Love You’라는 메시지와 함께 4.5x3.6미터 크기의 LED 조명과 네온플렉스로 꾸며졌다. 눈이 내리는 듯



2024년 성탄 트리 점등식 개최 기념 사진. ©서울신대

한 화려한 연출로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장요한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성탄트리 점등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일 오후 대성전 앞 십자가탑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점등식에는 성도와 목회자 등 600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하는 날”이라며 “어려울수록 섬김과 나눔을 통해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탄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빛을 밝힌다. 김진영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2월 1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지속가능한 교회생태계 구축해 빛과 소금의 역할 회복해야”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축소시대의 기독교교육’ 주제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장신근 박사, 장신대 교수)가 최근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축소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영사를 전한 장신근 박사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초, 중, 고 학생인구의 트리플 절벽 시대가 도래 하였고, 그 여파로 교회학교의 출석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감소세도 지난 10년간 학생인구(19%) 대비 2배(37%)에 달하고 있다”며 “교회학교가 아예 없는 경우도 한국교회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소형교회의 경우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축소시대의 기독교교육학으로 정하고 학술 프로젝트를 공모한 것도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기 위한 작은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작은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올해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앞으로 시대의 변화와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강이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유은주(한국기독교교문화연구소)·문수경(연세대)·이향순(배제대) 박사들의 학회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 연구인 ‘축소시대의 지속가능한 교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교회, 사회적 변화의 흐름 올바르게 분석·이해해야

유은이 박사는 “21세기에 접어들어 국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크게 밀물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암울한 미래를 염려하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새로운 노골이 되었고, 인공지능(AI)의 도래로 야기될 산업 구조의 극심한 변화와 기후환경 위기 등으로부터 고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교인 수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며 “코로나19의 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기념 사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응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YouTube) 등 미디어의 등장은 ‘플로팅 크리스천’을 양산·확대시켰다. 코로나19 이래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증가 역시 탈교회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목회데이터연구소 올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 이/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122만 명에서 2050년 70만 명으로 현 수준의 5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인구 감소의 영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담임 목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다음세대 교육문제’가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도의 어려움, 영적 침체의 문제,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재정적 어려움 등이 자리했다”며 “교회들의 규모는 점점 작아져 예산 통합의 경우만 보더라도 3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들이 전체 교회의 85%에 이른다”고 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 우선 한국교회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분석,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와 광범위한 요구를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크게 구조적 차원에서 교회 간의 협력적 매커니즘을 창출하는 것과, 실질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교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쇄신을 통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희망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한 교회 생태계를 위한 과제
이들은 “사례를 통해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해 교회가 지역사회 이웃들 및 다른 교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협력하려는 의지와, 성도들을 비롯해 부교역자들, 지역주민들을 동반자, 동역자로 이해하면서 그들과 평등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교회가 가진 자원을 기꺼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이나 다른 교회들과 아낌없이 공유, 개방하고자 하는 도전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적인 모본을 보여준다”며 “이로써 그동안 개교회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벗어나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교회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교회 생태계를 위한 과제로는, 먼저 한국교회에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사람들의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진행 사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필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교회만의 시그니처를 개발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들과 가나안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에 맞는 자기 교회만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회가 사람들을 가리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목회자의 목회적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한 교회 내의 인식 개선 및 이 중직 선별의 자율성, 사례비의 현실화, 은퇴 이후의 생활 대책 등 목회자 처우에 관한 부분과, 목회친화적인 교회법 등 제도적 개선의 문제, 목회자 또는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마련 및 공유교회 등을 통한 개교회중심주의의 극복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교회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유은이 박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으로 중소형 교회들은 지역별 중소형 교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주중 사역의 강화, 교회 자원 공유, 평신도 리더십 구축 등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은 교회로서의 장점을 살려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동네 사랑방과 같은 제3의 공간으로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교회 내에서는 세대통합 교육 및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 복합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선교적 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을 육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회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한 국교회는 세상에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논평을 한 이현철 박사(고신대)는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며 “먼저, 연구자들은 질적 자료 분석 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코딩 방법과 절차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연구자들은 해석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셋째로 연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한 것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적 의미와 맥락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어서 분과발표가 진행됐다. 분과발표에는 총 10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는데 ▲기초이론분과에서는 안정도 박사(장신대)가 ‘B급 문화 담론의 간헐문적 함의: 어린이신학과 지역중심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교회교육분과에서는 김진영 박사(서울신대)가 ‘목회자 성비위 예방을 위한 정서지능 고찰’ ▲교육심리 및 상담분과에서는 김희영 박사(장신대)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를 통해 본 기독교 성품교육 방향’ ▲성인교육분과에서는 김신우 박사(대림성경교회)가 ‘개입기반 학습이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의 표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 및 방법분과에서는 이은철 박사(백석대)가 ‘전환기시대 대응을 위한 기독교대학의 신학교육체제 개편방안 연구’ ▲통일교육분과에서 문은영 박사(장신대)가 ‘축소시대에 인공능력과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교육’ ▲여성교육분과에서는 김옥순 박사(장신대)가 ‘성인교육에서의 맞춤형 교육사예 연구’ ▲영성교육분과에서는 김신영 박사(영남신대)가 ‘힘을 넘어: 문화반응적 영성 형성’ ▲학교교육분과에서는 정서학 박사(송의여고)가 ‘기독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방향성 연구’ ▲신진학자 연구분과에서는 최민영(장신대) 박사과정생이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정신학의 새로운 모색: 보니 밀라 맥레모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요한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 10.6% 볼 탄력 개선
-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관리자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세상 7일 후, 언제든 사랑 받고 싶을 때] 2023.01.25~2023.03.10 [사은품] 8221 이상 30% [사은품] 1410 이상 40% [사은품] 2000 이상 50%

청년·청소년 사역,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바이블백신센터, 제6회 청년사역자 세미나' 및 '제5회 청소년 사역 핵심파일 세미나' 개최

바이블백신센터(원장 양형주 목사)가 청년 및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해 12월 12일에 '제6회 청년사역자 세미나', 12월 26일에 '제5회 청소년 사역 핵심파일 세미나'를 각각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우선 해마다 청년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 열렸던 '청년사역자 세미나'는 올해 '청년사역 restart'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최근 무신론자들의 증가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교회가 질적 및 양적 성장에 위기를 맞아 고령화되어 청년 인구 또한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20년간 청년 사역에 몸담았던 바이블백신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을 교회 다음 세대의 주축으로 세워가기 위해 본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양형주 목사는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중대형교회 청년부 그리고 2천 명에

이르는 청년 공동체까지 두루 경험한 청년 사역 전문가다.

이어 '청소년 사역 핵심파일 세미나'는 15년간 청소년 사역을 연구하며 가시적인 성과와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정석원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그는 모든 일에 시적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에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다고 한다.

주최 측은 “특히 청소년은 대한민국도 '선교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70%가 사라진 상황이며 그 중심에 청소년이 있다.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사역의 실질적인 고민과 돌파구'라는 주제로 열린다. 주최 측은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교사와의



동역, 더 나아가 부모의 동역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소개했다.

바이블백신센터는 “다음 세대의 복음 화육이 현저히 떨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른 대처로 교회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사명은 사역자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들은 청년,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여 고민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이블백신센터 홈페이지(bv.or.kr) 또는 전화(042-822-8009)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영 기자

탈북 20대 “북한 젊은 세대 김정은 맹종하지 않아”

엄격한 통제와 경제난 속 불만 확산… 한국문화 향유하며 자아 찾는 중

한 20대 탈북민이 북한 내 젊은 세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난과 과도한 통제로 인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젊은 층이 개인의 행복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탈북해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강규리(가명, 24) 씨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영화 상영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오미

우리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씨는 북한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태어나 대학 시절에는 탁구 선수로 활동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경제난과 부정부패, 과도한 통제를 경험하며 북한의 실상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북한 당국의 배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생필품을 장마당(종합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

는 사회”라며, 대학에서조차 뇌물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14살 때부터 몰래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으며, 탈북 전날까지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시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겨울연가’, ‘이태원 클라쓰’, ‘상속자들’ 등 한국 콘텐츠가 북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강력히 통제했다. 강

씨는 길을 걷다 경찰에게 불려가 휴대전화 검사를 받으며, 남한식 단어를 사용했는지 확인당한 경험을 전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려다 처형당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고된 삶을 견디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또래 북한 젊은이들이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과거와 달리, 자기 행복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내 젊은 세대가 과도한 통제로 불만을 품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에 맹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부모님과 동료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출해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 어민을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컸다”며, 어민이 건넨 ‘잘 왔다’는 말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북한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도움을 주려 한다는 점과, 한국에 오면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중국, 러시아 제재 경험 통해 대만 갈등 대비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분석하며 서방 제재 후회 전략 강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보도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갈등 시 예상되는 서방 제재에 대비해 ‘제재 회피’ 전략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석유를 대량 수입하고, 전자제품과 세탁기 같은 생활 물품을 공급하며 러시아 경제를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축적하며 전략적 이점을 얻었다고 분석된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 기관 간 연구팀을 조직해 제재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목표는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가해질 제재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중앙은행, 재무부, 제재 대응 관련 기관들과 협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경제 정책과 지정학적 전략의 경계가 흐려지며, 경제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러시아 사례 통해 준비의 중요성 깨달아**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석유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적 회복력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는 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는 “중국은 러시아를 제재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며 “대만과의 비사태 시 중국에 유사한 도구가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약 3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 사례를 보고, 중국은 미국 재무부 채권 같은 달러화 자산 의존

도를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외환관리국을 방문해 외환보유고를 보호하는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중국 연구팀은 경제제정 문제를 총괄하는 허리핑 부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허 부총리는 서방의 제재로부터 중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설계자로 알려졌다.

◆**서방 제재에 따른 위험과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급증해 지난해 2,4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약 60%가 중국산 일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양국 간 상황이 역전될 경우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미미하다.

러시아의 사례에서 중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제재를 대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는 전쟁 이전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하고 탈(脫)달러화를 추진해 제재 속에서도 경제 적응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또 다른 교훈은 국제 연합의 가치와 한계다.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지만, 서방은 금융 네트워크 퇴출, 유가 상한제 등에서 단결된 대응을 보였다.

반면 석유 제재와 관련된 서방의 의견 불일치와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훨씬 큰 중국은 글로벌 경제와 깊이 얽혀 있어 제재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서양협의회와 로동그룹은 서방 제재가 발동되면 약 3조 달러 규모의 무역과 금융 흐름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얽힌 경제적 취약성을 인식했다. 러시아는 경제 자립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았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없는 차량을 생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홍은혜 기자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전면 제한

폭력·혐오 방지 명목… 전 세계 SNS 규제 확산 움직임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과몰입과 SNS를 통한 폭력·혐오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면 내년 말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 이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절차상 연방 총독의 최종 재가가 남아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져 법안 공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어떤 플랫폼이 포함될지는 추후 호주 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스냅챗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메시징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에 특화된 플랫폼인 왓츠앱, 디스코드, 유튜브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주 정부는 SNS를 통해 확산된 폭력과 극단주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만큼 청소년 이용 제한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시드니에서 발생한 16세 소년의 흉기 난동 사건이 SNS를 통해 활동해온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2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발효되며, SNS 기업은 이 기간 내 기술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 동의 없는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14-15세 청소년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사용 여부에 친권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NS 이용 제한 법안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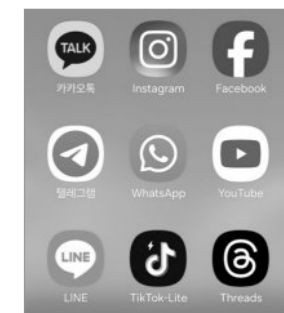
호주의 경우, 메타와 엑스(X) 등 플랫폼 기업들

은 법안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 대상 플랫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광범위한 SNS 정의로 인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청소년 과몰입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광주대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의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아 SNS 과몰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강압적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호주의 사례는 청소년 보호와 자유권 침해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전 세계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은혜 기자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스마트폰 캡처

한국 정부, 트럼프 측근 출신 로비업체 머큐리와 계약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의 최측근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Mercury Public Affairs)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머큐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4만 달러(약 5586만 원)로, 계약 내용은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관계자와의 연결 및 대사관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머큐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해온 로비업체다. 특히 최근 트럼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인수위 비서실장 내정자인 수지 와일스가 이 업체 출신으로, 와일스는 2022년까지 머큐리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인물인 브라이언 랜자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공보 부국장을 역임한 뒤 머큐리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큐리는 스페이스X, AT&T, 카타르 대사관 등 여러 주요 고객을 대리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

지는 공식적인 외교 접촉이 제한된다. 이는 민간인의 외교 활동을 금지하는 로건법(Logan Act)을 의식한 조치로, 해외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렵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머큐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트럼프 측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사관이 경제 이슈 분석 및 논의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그동안에도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를 위해 로비업체를 활용해 왔으나,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 머큐리와의 계약을 통해 트럼프 측근과의 네트워크를 보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은혜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Energy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탈탄소·친환경 전력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박해와 우리의 역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는 토드 넬슨 부사장(순교자의 소리 메시지 담당)의 기고글인 '성경이 박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그리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What the Bible says (and does not say) about persecution)을 29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넬슨 부사장은 순교자의 소리의 메시지 담당 부사장이자 순교자의 소리 라디오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북한 등 많은 국가에서 그 형태는 체포, 사회적 억압, 가족 및 지역사회의 배척 등으로 다양하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와 현대의 신자들이 경험한 박해 사례는 이

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박해의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신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서 믿음의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성경은 박해를 피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며 평안과 용기를 제공한다.

◆박해를 통해 교회가 강해질 수 있다

성경은 박해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빌립보서 1장 12-13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고, 다른 신자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할 용기를 주었다고 기록한다. 역사적으로 박해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지교회회는 45년간의 정부 억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에리트레아 교회도 마찬가지다. 감옥에 갇힌 목회자들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해 속에서 교회의 초점은 더욱 선명해지고, 교단 간의 분열도 공통된 고난과 목적 아래 사라지게 된다.

◆박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

성경은 박해를 대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도 성경은 역할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마치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므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이는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잊지 않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다.

중앙아시아의 한 감옥에 갇힌 목사가 세계 각지의 신자들에게서 받은 격려의 편지 덕분에 간수와 교도소장이 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변화를 경험한 일화는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박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

시련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란의 한 가정교회 목사가 체포된 후 그의 아내는 자신도 체포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말할까 봐 염려하며 기도했다. 그러나 성경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 자신을 심문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문관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녀와 남편을 풀어주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증명한다.

◆성경이 박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은 신자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박해가 가져오는 고통에도 불

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용기와 신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루마니아의 목사이자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인 리처드 뱌브란트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언급하며, 이는 매일, 심지어 율년까지 포함한 날마다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역할

오늘날 박해를 직접 겪지 않는 신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기도, 지지, 그리고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에게 격려를 전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시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연대하길 바란다.

최승연 기자

시니어센터 12월 4일 기금 모금 오찬 및 기금 약정식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12월 4일 11:30am 센터 2층 강당서 기금모금 오찬 및 160만 불 기금 약정식을 개최한다.

기부자 및 타운 내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된 이래 세번째 행사이다.

시니어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금을 약정한 기부자 열 여섯 명은 이날 1만 불 씩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 순서로 시니어센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64명에게 시니어센터 이사회에서 선물을 전달한다. 리크 김 효승월드 대표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64명에게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1만 불 기부자(올해 첫 참가자 포함)는 다음과 같다.

강창근 Edgemine Inc. 회장/ 글로리아 김 Aqua Life Water Systems CO. 대표/ 김영석 Peter YS Kim= 3 Plus Logistics 회장/ 돈 이 Don Rhee= Active USA Inc. 회장/ 브라이언김 Brian S Kim= Turbo air 회장/ 신영신 Yong Sin Shin= Bici & Coty Inc. 회장/ 이상영 Sang Young Lee= PCB은행 이사장/ 이영근 Young Geun Lee= Propac Corp. 회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12월 4일(수) 11:30am 센터 2층 강당서 기금모금 오찬 및 160만 불 기금 약정식을 개최한다. ©주최 측 제공

장/ 이현옥 Lee, Hyunok= Rothrock Whan Ha= 한남제인 회장/ Brian Na= Waves, Inc. 회장/ 정유진 Janice Yoojin Mega Capital Funding Inc. 대표/ Robin Kim/ Bank of Hope/ Korean American Foundation(KAF) 김민선 기자

성광회, 11월 정기 모임 갖고 친교 나눠

구자민 목사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설교 전해

성광회(대표 최치규 목사)가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에 11월 정기 모임을 열고 은혜로운 말씀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최치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찬송과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최승은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구자민 목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구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를 전했다.

이어 송중복 목사의 인도로 특별 기도 순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청 교회와 성경 교단을 위해,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선교와 선교 사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신원철 목사가 광고를 전한 후, 노재룡 목사가 축도를 통해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친교를 나눴다.

성광회는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회원 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성광회 정기모임을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추수감사잔치, 한인시니어들 흥겨운 시간 가져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는 잔치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와 PAVA World(회장 명원식)가 공동 주최한 2024 Thanksgiving 잔치가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지역 주민과 시니어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PAVA World 회원들은 한국무용, 사물놀이, 댄스 등 아름다운 춤



장구 가락에 맞춰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주최 측 제공

과 연주를 펼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고, 신영신 이사장은 "올해도 시니어센터와 함께 Happy Thanksgiving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웃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즌을 다 같이

뜻있게 보내자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PAVA World가 준비한 추수감사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기쁘게 보냈다.

김민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英 기독교인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위협받아”

영국 에섹스 경찰이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에 대한 집중 수사를 중단했음에도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텔레그래프 엘리슨 피어슨 기자가 1년 전 이스라엘 반대 시위에 참여한 파키스탄 정당 시위대를 ‘유대인 혐오자’라고 언급한 트윗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피어슨은 영국의 한 거리에서 깃발을 펼쳐 든 남성들과 경찰관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리트윗하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 유대인 혐오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라고 했다.

당시 런던 경찰의 가지지구 관련 시위 대응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사진은 런던이 아닌 맨체스터에서 찍힌 것으로, 참가자들이 든 깃발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라 파키스탄 정당 깃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피어슨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두 명의 경찰이 피어슨이 예배를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에섹스에 소재한 그의 집을 찾아와 그를 심문했다. 피어슨은 텔레그래프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에섹스 경찰의 행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

정에 “이런 일은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그녀를 지지했다.

에섹스 경찰이 피어슨에 대한 혐의를 철회하고 조사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날, 타임스와 유대계연대기 칼럼니스트인 멜라니 필립스는 자신의 서브스택에 “잘못된 언행에 대한 경찰의 감사·증오범죄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필립스는 “피어슨에 대한 처우는 더욱 과장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트윗은 실제로 인종적인 증오에 항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전

혀 증오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영국의 런던과 다른 도시의 거리에서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대량 학살과 세계의 유일한 유대 국가를 파괴할 것을 외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살인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거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시위와 그보다 작지만 비슷한 수많은 사건으로 인해, 많은 영국 유대인들은 런던 중심부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다.

필립스는 경찰들의 행동 뒤에 있는 신 마르크스주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증오범죄와 차별적 증오에 대한 대부분의 항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으로 급진전하는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단지 일부 유형의 표현, 즉 특정 보호 집단의 문화 전반적인 권력 장악에 따르지 않는 표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오에 대한 이러한 완전히 주관적인 기준은 부당하게 비난받는 대상의 명예와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완전히 성가신 주장의 길을 열어 줬다”며 “실제로 진짜 증오의 대상인 사람들은 무시당하거

나, 자신에게 표현되는 증오에 항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와 관련된 권력 남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 경찰의 고위층을 사로잡고 기독교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는 문화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신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성적 도덕성과 성 정체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의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그렇다”고 했다.

이명기 기자

美 성공회 아프리카계 대학, 재정난으로 직원 절반 감축

성공회와 제휴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이 재정 문제로 인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성 어거스틴 대학(Saint Augustine's University, 이하 SAU)은 최근 “파트타임과 풀타임 비교수(non-faculty) 직책과 일부 공석을 포함한 여러 직책을 없앨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4년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이 대학은 67개 직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37개는 정규 교수이고 32개는 시간강사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50%에 해당된다.

내달 열리는 미국 남부 대학 협회 위원회(SACSCOC) 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이 조치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적 책임을 향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 SAU는 2023년에 비해 2024 회계연도에 약 1천7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



성 어거스틴 대학. ©YouTube/Saint Augustine's University

학은 현재 공급업체와 여러 미지급 잔액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일의 속도는 유망하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라고 SAU 임시 총장 마커스 H. 버제스가 말했다.

그는 “성 어거스틴 대학교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이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합

계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AU는 남북전쟁 이후 해방 노예들을 교육하기 위해 186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교구가 설립했다. 이 기관은 현재 롤리 도심 근처의 105에이커 캠퍼스에 있다. 이 학교는 평균 약 1천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SAU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은 보호 관찰을 받았지만 나중에 완전한 인증을 회복했다고 현지언론인 WRAL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SACSCOC 이사회는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SAU를 공인 기관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투표했다. SAU는 지난 2월 팔콘 프라이드 이니셔티브 펀드레이징 캠페인을 시작해 공식 인증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지속적인 재정 및 인증 문제에 대응해 대학은 대부분의 수업을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치는 4월부터 시행했다.

버제스 총장은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의 SAU 커뮤니티의 안전, 복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도 우리의 최우선 책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보고에 따라 해당 대학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ACSCOC가 임명한 중재 위원회는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인가 박탈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은 여전히 보호 관찰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명기 기자

인도네시아 당국, 가톨릭 성당 인근 쓰레기 2년간 수거 안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2년간 성당 건물과 가톨릭대학 인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MSN)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주 족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성 안토니우스 파두아 가톨릭교회와 인근 사나타 다르마 가톨릭대학교 예수회 캠퍼스 인근에 2년간 방치된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인해 신도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교구인 수시 사스미타는 MS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쓰레기 문제는 1980년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다. 우리가 쓰레기가 빗물과 섞여 진흙이 되면 불쾌한 악취가 난다”면서 “이 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악화됐고 교구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 사건이 모스크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사스미타는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상황이 더 나빠졌다. 교인들은 이 쓰레기 냄새로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75-80m 구간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가톨릭 대학 사제인 안달라스 무티아라가 지난 10월 24일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그는 캠퍼스 옆에 있는 큰 쓰레기 더미 위에 십자가 모양의 자세로 누워, 관리들에게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족자카르타 특별지역 정부



교회 인근에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 ©모닝스타뉴스

는 웹사이트를 통해 하니프 파이솔 누로피 환경부 장관 겸 인도네시아 환경 통제청장이 지난 11월 18일 도시 폐기물 처리장을 갑작스럽게 점검했다고 전했다.

하니프 장관은 “도시사와 폐기물관리 소장이 즉시 상류 단위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 다음, 환경교육자 수를 늘려 대중에게 폐기물 선별과 분리에 대해 교육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중 무슬림은 83.3%, 기독교인은 11.43%, 복음주의 인구는 3.23%로 추정된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42위였다. 오픈도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사회는 보다 보수적인 이슬람적 성격을 채택했으며,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명기 기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생존하려면 나토 가입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자국 생존 필수 요소로 거론했다.

DPA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국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연합(EU) 신임 지도부와의 기자회견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

토 가입 초창기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앞서 나토 측의 안보 보장과 추가 무기 획득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국 영토의 일부만 나토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영토 장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국제법이 인정하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토대로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날 키이우를 방문한 카야 칼라스 유

럽연합(EU) 신임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휴전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병력 파견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휴전이 실시될 경우 EU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그는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선택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남영 기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하이마트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체험을
더 쉽게



로보락 & 샤크까지
글로벌 브랜드를
더 쉽게



수리·클리닝·이전설치
가전 케어를
더 쉽게



다양한 가전을 편하게 비교하고 체험해 보세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예산안 상정 보류한 국회의장... “여야, 10일까지 합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생각해 잠겨 있다. © 뉴스스

법정기한 내 처리 무산... 여야 대치 속 증액안 반영 여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 종료 일인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예산안 확정 시 늦어

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 숫자가 많다. 이유는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54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당일 처리를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야당은 예결위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감액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 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

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의 삭감이 포함됐다.

야당은 예결위의 합의안 도출 실패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예산 증액이나 신설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성공할 경우, 증액안이 반영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

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은 까다롭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용국 기자

경찰,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 수사 확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비방글과 댓글팀 운영 의혹 양방향 조사 중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양방향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비방글과 관련해 총 8건(고발 7건, 진정 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 고발 건수는 4건이며, 이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비방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된 사안이라며, 특정 인물

을 지목한 고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은 한 보수 유튜브가 한 대표와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해당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아직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3건의 고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댓글팀 운영 의혹은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이 지난 7월 해당 발언을 하며 제기했다. 장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 대표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 절차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통상적 수사 절차를 따를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서버 압수수색이나 한 대표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박용국 기자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 선회한 국민의힘... “오늘 특위 명단 제출”

민주당 단독 구성 우려에 입장 전환... 7명 위원 선정해 국회의장에 통보 예정

국민의힘이 2일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여를 결정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의석수 배분에 따라 배정된 7명의 위원 명단을 당일 중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특위 명단

을 제출하고, 야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 결정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했음에도 민주당이 정정용으로 국정조사를 시도해 당초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찰 수사가 발표되고 공수처 수사결과를 촉구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참도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스

국민들에게 낯설이 밝히고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국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휴지기... 의료개혁 논의 재개 필요성 대두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공백 문제, 협의체 재가동 요구 이어져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공식 회의를 중단하며 휴지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고려할 때 논의의 장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10월 대한의학회의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부는 10월 말 대학들에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협의체 논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11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한 협의체는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12월 1일 열린 4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 확대에 대해 수사에서 정시 이월 중단, 예비 합격자 번호 축소, 학교별의대별 자율권 부여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보와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증원 유보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협의체는 야당의 참여가 배제되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불참하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의료 개혁을 포함한 남아 있는 과제를 고려하면 협의체의 논의는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국 기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 자율적 수급조절** :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 소비 홍보** :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 교육 및 정보 제공**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한국자조회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환경농업협회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사)한국키위연합회

(사)한국딸기연합회

(사)한국감귤연합회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협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난 재배자협회

(사)대한두재협회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표류... 국토대장정 나선 아버지의 호소

치료비 절감·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논의 제자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 살 딸의 치료비 46억 원을 모금하며 880km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버지의 사연이 세간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치료제 생산비를 절감하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논의는 예산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전요셉 목사의 딸 사랑 양은 희귀 질환인 '듀센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다. 유일한 치료법인 유전자 치료제 비용은 46억 원

에 달해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로, 치료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는 유전자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임상 연구를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시설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미국 위탁개발생산(CDMO)업체에 의존해야 해 비용이 천문

학적으로 증가한다. 치료제 개발비는 약 25억5000만 원, 세포 치료제는 45억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센터 설립 시 10억 원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은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설립 타당성을 검증할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라도 확보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재부는 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두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는 전문학적 비용이 들어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도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유전자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선 바이러스 전달체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없다. 이는 환자들이 고비용의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고 있다.

소아희귀난치질환과질환환우회 이주혁 회장은 "세포·유전자 치료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투입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부 창출과 기술 유출 방지

라는 점에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유전자 세포 치료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요구' 청원은 1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어가려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맞은 국회에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증액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내래 기자



난치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는 전요셉 목사가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거리를 걷던 모습. ©뉴스시스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노동시장 이탈 우려

팬데믹 이후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 질 하락이 주요 원인

청년층(25~34세)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을 선택한 인구가 42만 명을 돌파하며, 이는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영구 이탈과 '니트(NEET)'화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이던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올해 같은 기간 42만2000명으로 25.4% 증가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례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팬데믹 이후 핵심 연령층

(35~59세)의 고용 질이 개선된 것과 달리, 청년층의 고용 환경은 비정규직 비율 증가와 근로시간 부족, 실직 위험 증가 등으로 악화됐다. 또한, 청년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비교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청년층이 48.4%로, 핵심 연령층(35.3%)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청년층 쉬었음 사유 중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이 32.4%로 가장 높아, 이들의 높은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쉬었음이 장기화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1년 미만의 쉬었음 증가는 1년 이상의 쉬었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90% 수준이었으나, 1년이 지나면 5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장기적 쉬었음은 청년층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켜 실제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이 현상이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민 과장은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가 고착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이 요구하는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내래 기자

상장사 이사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된다

재계 반발 고려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이번주 중 국회 제출 예정

금융위원회가 상장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기업 이사회 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합병, 중요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진행할 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의 목적과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검토했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다. 이는 120만개에 달하는 전체 기업이 아닌 2400여개 상장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합병분할 등 재무적 거래에서 회사와 주주, 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 일률적 가액 산정기준을



금융위 브리핑 현장의 모습. ©뉴스시스

폐지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사례와 같이 모회사 일반주주들이 분할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상법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질차 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이사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남겨놓으면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의견 공개를 통해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내래 기자

윤 대통령 "내수·소비 진작 대책 마련하라" 지시

경기 둔화 우려에 특단의 대책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향적인 소비 진작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전

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추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

기에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기 하락을 막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내래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교회음악 본질은 가사의 메시지 ‘극대화’”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밝히다, 한국교회음악협회 학술포럼

한국교회음악협회(이사장 윤의중)는 최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찬양대연습실에서 ‘교회음악: 가사와 음악의 관계’란 주제로 제17차 학술포럼을 열고, 앞으로 교회음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에 대해 △학술 △창작 △연주의 관점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교회 반주자, 지휘자, 작곡가 등 교회음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각 관점에서 고찰했다.

패널들은 찬송가 번역 혹은 연주 시, 원작의 의도와 원리를 이해하고 최대한 살리되,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음악의 본질이자 기능임을 확인했다. 또한 찬송 번역에 있어서 네 가지 지침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회 학술분과위원장 하재송 교수(총신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음악사를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가사를 통한 메시지 전달에 방점을 두는 ‘가사 우선’의 흐름이 낭만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음악의 본질과 기능은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교회음악에서 가사를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즉 ‘메시지’가 교회음악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요즘 찬송가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에 있어서 가사와 음악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회음악인은 음악을 표현하는 가사를 더 잘 드러내어 메시지를 청중에게 분명히 전달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협회 고문이자 전 찬송가공회 음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문승 교수(서울신대 명예)는 한국 선교 140년이 지난 지금도 번역자 혹은 작곡가들이 가사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어색한 혹은 부적절한 가사 번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 구조의 차이점에 따른 적절한 절충방안으로써 ‘순화’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주장했다.



한국교회음악협회는 ‘교회음악: 가사와 음악의 관계’란 주제로 제17차 학술포럼을 열고, 앞으로 교회음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백선영 기자

학술/창작/연주 관점에서 접근, 분석 찬송에 신학·음악·문학적 이해 필요 번역자 이름 표기하는 지침 제안도

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 구조의 차이점에 따른 적절한 절충방안으로써 ‘순화’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제안하는 ‘순화’란, 원곡의 의도와 메시지를 최대한 살리며 회중이 이해하고 부르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다. 음절수와 악센트를 맞추기 위해 못갓춘마디의 프레이즈라 할지

라도 ‘하행 순차진행, 점층적 진행, 예비 박음정’ 등의 요소로 보완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단음절적(syllabic)인 경우 중음절적(neumatic)인 음절법을 활용하는 것 등이다. 또한 가사에서 ‘생각되어진다’ 같은 이중 피동 표현을 지양할 것도 덧붙였다.

찬송이나 성가 선율의 리듬과 음율은 ‘언어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교수에 따르면, 일부 찬송은 한국어와 영어 구조의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절충 방안을 생각지 않고 자유롭게 번역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교수는 “이는 번역하는 사람의 음악적 개인 취향이나 주관적 신앙 감성에 따른 결과이다”며, “가사가 10번이나 바뀐 곡도 있다. 가사와 음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단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노래하기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적응하며 절충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양 언어는 정관사, 부정관사로 인해 ‘약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단어 ‘today’, ‘prepare’, ‘understand’ 모두 뒤쪽에 강세가 있다. 그러나 한국

어는 강박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흔하다. 이러한 언어구조적 차이로 인해 잘못 번역된 찬송은 가사에 들어간 단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못갓춘마디라도 우리말은 시작을 강박으로 해야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이미 알려진 곡은 바꿀 수 없다. 회중찬송의 주인은 ‘회중’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바꾸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발제는 음악가의 관점에 협회 이사인 백정진 교수(장신대)가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가사적 운율과 음악적 프레이징을 중점으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존 프랜시스 웨이드가 지은 찬송시인 우리에게 알려진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찬송은 라틴시가 원작이다. 그는 영어번역시와 한국 찬송의 우리말 번역시를 비교하며, “한글 번역은 라틴시와 영어 번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원작 시와 음악이 가진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고, 확립화 및 규격화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래 가사와 음악이 갖고 있는 구조를 가린다”고 분석했다.

또한 찬송가 53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예로 들며 ‘프레이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레이징이란 연속된 음들을 적절한 단위로 묶어서 곡을 읽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음악적인 ‘숨 쉬기’와 유사하다. 백 교수는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은 존 메이슨 닐과 같은 번역자들의 세심한 작업을 통해 시대와 교파를 초월하는 위대한 찬송들이 영국과 미국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에도 다양한 역본들이 번역자의 이름을 밝히며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원작시에 담긴 깊은 뜻뿐 아니라, 그 시를 담아내는 음악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곡을 성도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충분히 선행돼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찬송의 번역에 있어서 네 가지 지침을 제안했다. △최초 저자의 시(제1언어)를 이해하고 이후 제2언어의 번역을 참고할 것 △최초 저자물을 담았던 음악의 원리를 이해할 것 △성급



학술분과위원장 하재송 교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사 우선’의 흐름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영 기자



이문승 교수는 찬송가 220장 ‘사랑의 주님 앞에서’를 예시로, 영어와 한국어의 강세 차이 등 언어구조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백선영 기자



백정진 교수는 ‘원작시에 담긴 깊은 뜻뿐 아니라, 그 시를 담아내는 음악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곡을 성도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충분히 선행돼야 할 작업’이라고 했다. ©백선영 기자

한 규격화 및 확립화를 꾀할 것 △번역자의 이름을 밝힐 것 등이다.

한편 한국교회음악협회는 1964년 제1차 교회음악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후, 지난 2001년부터 학술포럼을 열어왔다. 학술적인 교회음악의 연구와 더불어 교회음악 전공의 현실, 교회음악 지도자의 현황과 제도, 찬송가의 한국화, 남북한이 함께 부를 노래 등 교회음악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회음악 발전을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다. 백선영 기자

1946년
조용하지만 커다란 혁신이
한화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 글로벌 테크 기업 Need 연계 암보호 시스템 제공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끄는 보험의 혁신은
시그니처 암보험, The H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혁신으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인간적 고뇌의 지저스와 유다를 무대 위에 담다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내년 1월 12일까지 공연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배우 마이클 리(지저스 역, 왼쪽)와 백형훈(유다 역) ©뉴시스

전 세계적으로 50년 넘게 사랑받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서울 신사동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1971년 초연 이후 꾸준히 화제를 모아온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이번이 여섯 번째 공연이다.

지저스의 생애 마지막 7일을 그린 이 뮤지컬은 등장인물을 인간적 고뇌에 휩싸인 모습으로 재해석하며 파격적인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지저스를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한 제자 유다와의 관계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넘버 ‘수퍼스타’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저스와 대조적으로, 죽은 유다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추며 노래한다. 이는 커튼콜에도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유다를 연기하는 백형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동안 유다는 빛나는 옷을 입고 등장한다”며 “관객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늘 궁금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장면을 두고 조롱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오히려 고통 속에서 신에게 묻고 노래하는 ‘환골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저스를 맡은 마이클 리는 2000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 출연한 이후 25년간 꾸준히

작품과 함께해 왔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팀의 맏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아들들이 태어난 후 아가페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유다를 연기하는 형훈을 보며 첫째 아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맡긴다는 지저스의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백형훈은 유다에 대해 “그가 죽기 전 부르는 넘버 ‘어떻게 사랑하나(I Don't Know How to Love Him)’ 리프라이즈는 모든 행동이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이라며 “그래서 유다의

죽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리는 최근 글로벌 전쟁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며 “종교적으로 많은 질문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가 묻는 마음으로 넘버 ‘갯세마네’를 부른다”고 전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성경 속 지저스와 유다의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사랑과 고뇌, 희생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작품은 내년 1월 12일까지 서울에서 공연된다.

이나래 기자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메기도 모자이크: 역사와 신앙의 만남

J. D. Kim 교수
덴버신학교



초대교회의 신앙이 2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소리고 있습니다. 2004년 이스라엘 북부 메기도 감옥 아래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는 1947년 발견된 사해 사본 이후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적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평가되며, 최근 이 발견이 다시 주목받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을 이전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추가 탐사와 대중 공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 (IAA)의 고고학자들이 공사 전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이 모자이크는 서기 23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가장 초기의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본 글은 메기도 모자이크의 발견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이 지닌 신학적, 역사적, 신앙적 중요성을 조명하며, 메기도 모자이크가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당시와 현대 교회의 여러 연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교회와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성탄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하고자 합니다.

◆메기도 모자이크의 발견과 세부 사항

메기도 모자이크는 기독교 기도실의 일부로 지붕 타일과 벽 회반죽 (plaster) 아래 감춰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붕 타일은 원래 건물을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했지만, 이 경우 모자이크를 물리적 손상과 침식에서 지키는 보존적 역할을 했습니다. 벽 회반죽 역시 습기와 외부 환경을 차단하며 모자이크의 원형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단순한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자이크를 신앙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후대에 전하려는 의도로 시행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메기도 모자이크가 발견된 기도실은 초기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이 기도실은 교회 건물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이전,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실은 신앙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은밀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실은 유대인과 로마인이 공존하던 메기도 지역의 다문

화적 배경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기도실은 여러 주요 그리스어 비문과 물고기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비문은 메기도 모자이크에서 발견된 주요 그리스어 문구로, ΘΕΩ ΙΗΣΟΥ ΧΡΙΣΤΩ, 라는 상징어 혹은 신성한 언어가 (nomina sacra)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바쳐진 헌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적 표현을 보여줍니다. ΠΡΟΣΦΕΝΙΚΕΝ ΑΚΕΙΠΤΟΥΣ ΤΗΝ ΤΡΑΠΕΖΑ ΘΕΩ ΙΗΣΟΥ ΧΡΙΣΤΩ ΕΙΣ ΜΝΗΜΟΣΥΝΟ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케пт우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테이블을 기념으로 바쳤습니다).

2. 여성 기부자 아케пт우스 (Akeptous)는 모자이크의 비문에 언급된 인물로, 성찬식 테이블을 기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헌신적 역할과 기여를 나타냅니다.

3. 모자이크에 기록된 로마 백부장의 기부 내용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다문화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비문에 따르면, 가이아누스 (Gaius)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백부장이 기도실 건축에 기부했으며, 그는 "우리의 형제 포르피리우스" (Porphyrius)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군사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냅니다.

4. 모자이크에 등장하는 물고기 이미지는 초기 기독교에서 사용된 상징으로, 그리스어 이크투스 (ichthys)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크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뜻하는 문구 "Ιησους Χριστος Θεου Υιου Σωτηρη"의 약자로, 당시 신앙의 요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징은 로마의 박해 시기에 기독교인들 간의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메기도 모자이크의 중요성:

1.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
모자이크에 새겨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문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믿고 있었음을 강력히 증명합니다. 반면, 이슬람 신학에서는 예수님 (이사)을 예언자이자 알라의 종으로 간주하며, 그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예: 수라 4:171)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히 부정하며,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로마 문화나



해당 헬라어는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케пт우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테이블을 기념으로 바쳤습니다"로 번역된다. ©J. D. Kim 교수



현지에서 고고학자가 모자이크를 복원하고 있다. ©J. D. Kim 교수



메기도 모자이크가 발굴된 현장의 모습. ©J. D. Kim 교수



메기도 모자이크 실물 모습. ©J. D. Kim 교수

이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 후대에 형성된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니케아 공의회와 (AD 325) 같은 신학적 결정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식화했다고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은 일부 학자들, 제인스 던과 (James D. G. Dunn) 모리스 케이스 (Maurice Casey) 같은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의 발견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단지 후대의 신학적 논쟁에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사도 시대부터 기독교 신학의 핵심으로 확립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경험과 받은 가르침에서 비롯되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래리 W. 허타도 (Larry W. Hurtado)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Lord Jesus Christ: Devotion to Jesus in Earliest Christianity, page 2-4). 이 발견은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음을 입증하며,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적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2. 초기 기독교 예배의 중심
메기도 모자이크는 성찬식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참여하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자이크에 언급된 여성 기부자 아케пт우스 (Akeptous)가 성찬식 테이블을 기부한 사실은 성찬식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줍니다. 기도실의 구조와 배치, 그들이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원하며 예배했던 방식을 나타냅니다. 당시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 이러한 기도실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성장했던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의도적으로 헌신했으며, 예배와 교제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와 달리,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성찬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성별이나 사회적 차별을 초월하여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포용성과 아름다운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3. 다문화적 특성
메기도 기도실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했음을 입증합니다. 모자이크에 기록된 로마 백부장의 기부는 로마의 군사 엘리트들조차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

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이 발견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기독교의 포괄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복음 아래에서 연합했다는 점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다문화적 특성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4. 신앙의 역사적 연속성

메기도 모자이크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오늘날 신자들이 가진 믿음이 초대 교회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연속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깊은 신앙적 전통을 확증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이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메기도 모자이크의 선언이 단지 문헌상의 기록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신자들의 믿음과 삶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신앙의 근원이 단절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현대 신자들에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모자이크를 신앙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후대에 전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우리에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5. 신앙의 자신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초대 교인들의 확신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용기를 줍니다. 성경과 고고학적 발견이 조화를 이루는 이 증거는 현대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전통적 유산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연결된 이 연속성은 성경 말씀의 권위와 신뢰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성은 우리가 세대를 넘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13:8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 지속된 복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단서와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담대히 복음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

메기도 모자이크는 초대교회 신앙과 예배를 확증하는 놀라운 기록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후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모자이크는 신약성경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초대 교회와 현대 신자들 간의 신학과 신앙과 성찬의 연속성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이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며, 믿음의 근본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기독교의 유산을 더욱 빛나게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심어줍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며, 포괄적이고 다 문화적이었던 초대교회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합니다.

이 글이 역사가 증언하는 신앙의 흔적과 신앙이 형성한 역사의 교차점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메기도 모자이크와 같은 고고학적 발견은 역사와 신앙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여, 그들이 또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데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발열

인후통

근육통

몸살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트랜스젠더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 전략



민성길 교수
연세대학교 연구소

크리스천이 본 젠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전통적 정신치료는 역동정신치료를 전향치료라고도 하는데, 이는 트랜스젠더를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트랜스젠더 전환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는 젠더정체성변화노력(gender identity change efforts, GICE)이라 한다. 크리스천들에 의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등 탈트랜스 신앙치료도 시행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정신의학에서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표준치료는 역동정신치료였다. 그래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정신치료를 상담은 이 역동이론에 기초한다)

역동정신치료에서 역동이란 정신역동(psychodynamic)이라고도 한다. 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방법에 기초한다. 역동이론은 정상행동이란 병적 행동(노이로제)이든 현재 특정 인간의 행동양식은 그 개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반응(reaction) 또는 대응(coping)에 기초한다고 본다.

즉 현재 문제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고 보며, 의식과 무의식, 또는 자아, 이드, 초자아 등 인격의 각 부분들에 각기 힘이 내지(나) 있다고 본다. 그 한 부분의 힘에 내지(나)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부분들 간 상호 갈등하거나, 어느 쪽이 압력을 통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표현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분노는 자아에 의해 참아질 수 있고, 또는 그대로 폭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억압되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치되어 동물학대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체화되어 히스테리성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승화되어 예술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 최종 표현된 행동이 사회에 적응적일 수 있고 비적응적(maladaptive)일 수도 있는 데, 비적응적이면 그런 행동이 바로 정신장애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반응성"(reactive) 정신장애를 "노이로제"라 불렀다.

그러면 그 반응이란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그것은 무의식에 있는 어려서의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서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들었다. 이는 성적 트라우마이다. 대표적인 고전적 노이로제는 히스테리 경련이었는데, 프로이트는 히스테리가 어려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미해결된 결과로 보았다. 이후 노이로제 개념은 확대되어 불안

에 관련된 모든 정신장애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나이가 정신분석가들은 모든 성장애들, 즉 성기능장애, 동성애, 성전환증, 성도착증, 심지어 성범죄도 일종의 "반응성" 노이로제로 보았다. 즉 어린이가 동성애자로 자라는 원인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정신성발달(인격발달)이 중단된 결과라고 보았다. 이로써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다른 성기능장애, 성도착장애, 성범죄 등은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 등 다른 노이로제들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는 논란이 많은 이론으로 치부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역동성" 개념보다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겉으로 나타난 증상에 따라 병명을 붙인다. 즉 히스테리성 경련은 기능성 신경증상 장애가 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정신 내면보다 겉의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래도 "노이로제"나 성격장애,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범죄 등등이 어린 시절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트라우마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있다.

현재 소아기 성적 트라우마 이론이 확대되어, "적대적 소아기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라는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적대적 소아기 경험이란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오이디푸스적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부모의

학대나 배대, 부모의 부재(이혼, 부모의 정신장애, 수감 등), 태만(아이들 내버려둠), 가난, 불우한 지역사회 환경, 부정적 동무관계(따돌림), 기타 성인들에 의한 폭력 피해, 특히 성폭력 피해 등등을 의미한다. 이런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들이,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화장애(히스테리), 약물남용, 성식장애(거식증 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자살, 범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보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들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도 적대적 소아기 경험과 관련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젠더불쾌증)는 어려서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불만이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에 대한 불만으로 "대치"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자신의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신체 모습과 성기 형태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상태가 젠더불쾌증(트랜스젠더)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 또는 혐오는 "신체변형장애"라고 한다. 이 모두 강박증과 관련이 깊다. 어린이들의 욕구불만은 흔히 몬스터, 하어로, 마법사, 거대로봇 같은 신체변형 이야기로 표현된다)

따라서 정신분석이나 역동정신치료의 목적은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현재의 노이로제, 즉 병적 상태와 과거

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洞察) 깨달음 insight)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과거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억과 감정반응은 무의식화되었다고 보고, 그 내면(무의식)의 욕구들과 갈등의 내용, 증상이 생겨나고 지속되는 과정과, 자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어기제들에 대해, 정신치료자의 "해석"을 통해 환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병적(노이로제적) 방어기제 대신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함으로 바람직한 적응적(adaptive)인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 하는 것이다. 치료 후에도 때때로 과거의 병적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는 혼잡(work-through)이라는 연습 과정으로 극복하게 한다.

정신치료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기법상 "자유연상"(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치료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즉 치료과정에서 따로 아젠다가 없다(agenda free)는 것이다. (이 점이 목적이 뚜렷한 신앙치료와 다르다) 진정한 정신치료는 강제가 아니다. (신앙치료도 강제로 할 수는 없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든, 정신치료자는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준다. 치료자는 환자가 "설명후 허락"(informed consent)에 서명하고 계약한 후 치료에 임한다. 이는 치료방법과 예상되는 효과와 가능한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의도가 치료자의 방법과 맞지 않

면 언제든지 치료를 그만 둘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설명한 후 치료를 허락받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로 치료한다는 말은 진정한 정신치료자에게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치료도 강제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모의 권리가 문제 된다. LGBTQ+ 옹호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도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아 청소년은 인격이 미숙하므로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소아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 이슈가 되었다. 트럼프는 부모 편이다.

정신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깨닫거나 홀출한 어른의 조언 또는 신앙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면, 인격은 더욱 성숙하게 발달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트라우마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부른다. 시편 119장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같은 의미에서 정신치료를 환자와 정신치료자가 협력하여, 이런 트라우마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림의 근육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빠른 속도가 이상이 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서두름과 조급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드림의 근육이 풀려 버렸습니다. 다시 드림의 근육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드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드림은 음미의 미학입니다. 속도가 빠른 가차 없이 창밖의 풍경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너무 급히 먹으면 맛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책도 너무 급히 읽으면 글맛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는 거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는 드림, 늦춤, 천천히, 기다림과 동경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소유한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드림이 주는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드림의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핍이 소중함을 낳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생수의 가치를 모릅니다. 저는 결핍의식보다 풍부의식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핍의 유익을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결핍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핍 때문에 꿈을 꿉니다. 결핍 때문에 풍성한 미래를 꿈꿉니다. 결핍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결핍 때문에 변화와 성숙을 추구합니다. 건강이 결핍될 때 건강을 갈망하게 됩니다. 풍부가 있기 전에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기대를 낳습니다. 결핍이 소원을 낳습니다. 결핍이 열정을 낳

습니다. 모자람 속에 풍성한 복과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자포자기 한다면 결핍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성장과 성숙의 자극제가 된다면 결핍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결핍 때문에 경험한 것입니다. 결핍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진보도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핍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족하면서도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의 결핍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삽니다. 바울은 범죄에 자족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길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

우리 민족은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분발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척자였습니다. 도전적이며 모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광부 생활과 간호사의 삶을 살기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별과 사막의 모래와 싸우며 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베트남 전쟁에 참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 철야 기도와 산기도를 드렸습니다. 복미와 남미와 여러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때문에 힘들었지만 불행하다 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내민 손이 어느 때보다 잘 삽니다. 반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 해하고 섭섭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합니다. 문제는 그 풍요로움이 방종을 낳고, 타락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덴동산에 뱀이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에덴동산과 같이 풍족한 곳에는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는 조급함에서 돌출 됩니다. 조급한 속도를 늦추고 속고해 보십시오.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드림은 잠시 멈춤입니다. 드림은 숙고입니다. 깊이는, 깊은 속고에서 나옵니다. 깊은 속고에서 깊은 논리가 나옵니다. 깊은 묵상이 깊은 깨달음을 낳습니다. 토마스 할란드 애릭센은 그의 책 《인생의 의미》에서 "나무에게 드림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나무는 느리게 자라

다. 그는 겨울 나무를 통해 깨달은 느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드림이 없으면 삶은 숨이 막히고,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머리와 꼬리도 구분할 수 없이 굽히기 쉬운 조각이 되고 만다. 나무는 뿌리에서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나무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생존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며 위쪽만이나 아래쪽으로 자란다." (토마스 할란드 애릭센, 『인생의 의미』, 더웨스트, 191쪽). 나무에게서 아래로 자라는 영성을 배웁니다.

애릭센은 "드림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삶의 근육이다"라고 말합니다. 드림의 근육을 키우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중에 드림의 근육을 키웁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십시오. 드림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드림을 통해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더욱 깊은 맛을 음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프로테스탄트, 당신의 용기지수는?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인간이 산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말 할 수 있는, 즉 가장 자신있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도덕적, 또는 철학적 가치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 21세기 지금 우리는 어떤 도덕적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구약의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했다. 잠언서를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지혜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롭게 살아라"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다. 결국, 그는 지혜자가 되어 지혜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고대, 주전 4-3세기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들이 지녀야 할, 즉 존재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가치들에 대해 말했다. 주전 3세기의 플라톤이나, 1세기의 키케로(Cicero)도 몇 가지 덕목 중에 지혜를 최고 위에 두었다. 아마도 구약사상, 즉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혜 다음으로, 플라톤은 용기, 절제, 정의를, 그리고 키케로는 정의, 용기, 절제 순으로 가치들의 중요성을 나열하였다. 당시 근동 일대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생활의 질서를 세워 살아 갔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 오늘날 "용기"가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주전 400년 경, 아테네의 니키아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하고 있을 때, 양자를 중재하여 평화협정을 맺은 인물인데, 그는 용기를 당시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그는 용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용기란 "무엇이 두려움이고 무엇이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 했다. 악을 악이라 규정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이 용기있는 것이다라 하는 것이다.

주전 4-3세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일대는 늘 전쟁이 있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병사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허무감이 들어 모두가 허무주의에 빠져 살았다. 세계역사에서 그때 자살이 제일 많았다 할 정도였다. 허무주의가 팽배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극복하고 전쟁에 나가 본인, 가족, 국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다. 당시 용기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었던 것이다.

용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정말 용기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용기하면, 전쟁이나 싸움에 주저없이 나가 상대방을 죽이고 이기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 일종의 물리력에 의지하는 용기인데, 그것 만이 용기라면, 코끼리나 하마, 사자같은 동물들의 약육강식 도출현상이 최고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강한 신념의 발현이 용기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론적, 그리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우선, 성경에서 다윗왕 시절 나단은 다윗왕의 비리를 정면에서 비난하는 용기있는 인물이었다. 또, 고대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왕궁에서 활개치고 있을 때 이를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지도자 850명을 단신 홀로 싸웠던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 헤롯의 부정을 말한 세례요한도 참으로 용기있는 인물이었다 할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어떤가. 그는 막강한 종교권력 집단이었던 카톨릭 교황청을 상대로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슴에 근거하여 윗엔

베르그 성당 때문에 방을 못으로 박았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제였던 것 잘 알 것이다.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행동한 그 용기는 카톨릭 포함 기독교 역사의 최고 분수령으로 기록되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에 반대하여 활동했던, 그러다 1945년에 사형당한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조선시대 알지못하는 미개한 나라 조선에 선교하겠다는 하여 풍악하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온 선교사들의 용기, 조선인 순교자들 모두 용기를 가진 인물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니키아스처럼,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을 용기라 했는데,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1892-1971)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회자, 그리고 학자로서 용기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신앙인들의 용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1세기 들어 오면서 지금의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필요하는가"에 대해 의지를 나타내시고 스스로 답하신다. 지금은 지식이나 물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 정의에 대한 학문연구도 수천년 동안 해온 결과 바른 정신이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학문적 논리 역시 인간 기능으로서의 한계점에 이른 만큼, 이제는 다른 가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용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개인자신이나 사회가 개선해야 하고, 정의를 살아가는 일에 대해 비평하거나 지적하는 데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왕궁에서 활동하는 우상숭배, 주술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회개를 촉구한 엘리야 같은 정의의 예언자적 기질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진화론, 유신진화론 같은 이단사실이 유행하는데도,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해도 힘을 합하여 싸우지 않는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이단적 요소가 있는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나버의 기도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 다 용기가 없어 못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21세기 인간, 인류의 영혼을 책임지는 크리스찬들이라 말 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순교하며 로마교회를,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 교황의 교권에 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루터교회와 장로교회를,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가 강도권을 박탈할 때 "세계는 나의교구"라 외치며 성경운동에 앞장서는 용기로 감리고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청교도들의 용기로 미국을 건국했는데, 프로테스탄트 당신의 용기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社 說

성탄트리 불빛이 북녘땅 환히 밝히기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 지키는 이 절기는 올해는 12월 1일 시작돼 성탄절 전 4주간 이어지게 된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언제부터 지켜지게 됐는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으나 공식적인 전례에 포함된 건 주후 567년 투르 공의회 때부터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키듯 대림절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탄트리 장식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탄절 전야에 숲속을 산책하던 중 전나무 숲 사이에 쏟아지는 달빛에 영감을 얻어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성탄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축하하는 일종의 상징물이다.

대림절을 전후해 한국교회가 예배당과 전국 각 시도 주요 시설에 설치하는 성탄트리도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성탄트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감회에 젖게 하지만 진정한 뜻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평화)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있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2024 대한민국 성탄축제의 시작을 알린 점등식에는 예강 통합 총회장 김영길 목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의 어둠을 밝히며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성탄절의 의미를 일깨우게 될 것이다.

올해 기독교 기관과 교단이 밀집한 서울 종로5가 가로수엔 트리닝(tree knitting), 즉 성탄 트 개웃으로 치장됐다. '트리닝'이란 겨울철 추위로 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에 뜨개옷을 감싸는 것으로 성탄의 의미를 담은 뜨개옷을 제작해 가로수 60여 그루에 입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을 전하고, 겨울 추위로부터 나무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대림절을 알리는 이런 상징물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 상업적인 유행문화로 변질되면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화려한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바른 성탄절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큰 울림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희망의 빛을 전하는 건 광장에서 세워지는 성탄트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해마다 이맘때 아기봉 등 전방 지역에 대형 성탄트리를 세우고 불을 밝혔었다. 전방 부대에 세워진 성탄트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런데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전방 부대 관내 성탄트리에 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더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발미를 주지 않으려는 군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1971년에 설치된 아기봉 성탄트리는 높이가 30m에 이르고 북한과의 거리는 3km에 불과해 그 불빛이 개성시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아기봉 성탄트리 점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사실 그 이듬해인 2011년에도 아기봉 등 4곳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북한 감정일이 사망하면서 급변하는 정세 불안이 이유로 모두 취소되고 말았다.

매년 서울 도심 한복판과 각 주요 도시에 세워진 성탄트리에 불을 들어오는 건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도 기독교를 '야합'이라며 금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억압하고 있어 북한 주민에게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런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전방 지역에 불을 밝히는 성탄트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이 그 불빛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대북방송을 재개한 마당에 전방고지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분쟁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바꾸셨다. 그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깊은 어둠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대림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지금 휴전선 철책 너머에 자유를 갈망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어서 속히 전방 지역에도 성탄트리 불이 환하게 켜져서 북녘땅에도 주님의 '살림'이 널리 선포되기를 바라며, 성탄트리 불빛을 본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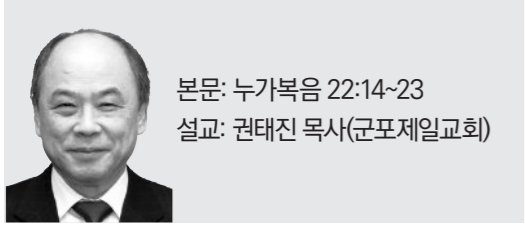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본문: 누가복음 22:14-23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감사, 사랑, 행복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다짐한 2024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과 사람이 넘치는 해가 다가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큰아들의 반발도 있으나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불의한 무신론자로부터 자유와 신앙, 천부적 인권을 지키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사람도 행위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16-20)

나무도, 사람도, 교회도, 나라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인생의 평가도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최후의 만찬과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22:15)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열 번째 재앙의 때, 양의 피로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양의 피는 승리의 피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날을 아시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출12:7-10)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

유월절은 애굽인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께는 공의를 만족케 하고 믿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사탄에게는 굴욕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찬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22:18)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눅22:19)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고 하나님



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자신의 몸을 상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양이 죽어 피를 쏟을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20)

구약에서 피의 언약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치는 영이 넘어가게 하는 언약입니다. 신약에서 피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를 믿는 사람, 즉 예배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교회 가서 말씀 들어라’, ‘기도 해라’, ‘언보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자녀는 모든 교훈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녀는 간섭한다고 반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설교를 듣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 듯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3. 가롯 유다의 최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눅22:21)

최후의 만찬에 가롯인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반열에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마26:6-9)
마리아는 삼백 데나리온의 옥합을 썼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아저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말고 거기 넣는 것을 흠처 감이러라”(요12:4-6)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이 일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 이 향유의 가치는 노동자의 일년 품삯의 거금이었습니. 요즘에도 가롯 유다의 사고를 가진 자는 교회를 자신의 욕신의 정욕을 채우는 곳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들은 매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함을 아는 자는 옥합을 깰 뿐만 아니라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하시니라”(눅22:22)

예수님에 대하여 작정된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동정녀의 잉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 핏값을 친히 당함으로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후 천국으로 가시고 때가 되어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서울시, 복지재단·기업과 맞손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9개 민간기업단체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복지재단, 9개 민간기업 및 단체가 모여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문고, 당근마켓, 대상, BGF리테일, hy(한국야쿠르트),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풀무원식품, 사)한국빨래방협회 총 9개 기관이 함께한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외로

움을 정책 의제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뛰어넘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립은둔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협약에 따라 사·복지재단-9개 기업단체는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협력체계 구축 ▲고립은둔 가구 발굴지원 협력체계 구축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 등 3가지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서 교보문고, 당근마켓 등은 지역주제별 다양

한 모임을 구성하고 챌린지 등의 행사를 추진하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고립은둔 가구 발굴지원을 목표로 대상과 풀무원식품은 외롭고 고립된 시민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hy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음료 배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프레스 메니저(건강음료 배달원)가 고립은둔가구를 발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해 나간다. 고립은둔 가구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업종인 BGF리테일, GS리테일, 우아한형제들, 한국빨래방협회는 24시간 상담가능한 ‘외로움안녕120’을 홍보하고, 고립가구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람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앱 ‘배달의민족’을 활용해 고립위험도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신설

하고, 진단 결과를 외부로 공유하거나 관련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할인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구제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로움에 고립은둔으로 심화되고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시 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개인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차희 기자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복순원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민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상담치유하여드립니다

(자격번호:39-13)

바른생활
바른목회
바른신앙
가정 신앙 윤리
술 담배 돈 명예
이성 폭력 이혼
노인 건강 문제
혼자 풀기 어려운 일을
고민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상담받아 바른생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치유사
이종운 목사
(목회 51년 은퇴)

상담치유선교회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으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허리 관절통증 무료체험행사

1개월 이상만 복용하셔도 재구매율 85% 이상 ▲ 무료체험 후 효과 있을시만 주문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회

※ 꼭 체험 후에 구입하십시오 ~

체험 후 효과를 보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체험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허가: 제 2020-0029046호 특허등록: 제 30-1204880-00-00호

(주)관절건강에서는 한방연구에만 40여년을 종사한 한방 제품을, 각종 관절의 통증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꼭 무료체험용을 보내드립니다.

- ※ 계단보행이 불편하신 분
- ※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 분
- ※ 무릎, 허리, 발목, 목등이 불편하신 분
- ※ 이번 기회에 관절건강을 찾고 싶은 분

10일분 무료체험 (주)관절건강 꼭~보내드립니다! 가격도

주문은 꼭 문자로만! 무료체험 택배비 4,500원만 착불!

010-6335-0165 저렴합니다!

02) 2268-0719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 (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준작.
한스와 그레텔 (주연)
씨르프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 (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기독교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한영실신신학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표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 | |
|--|----------|
| 학 과 | 연극선교학과 |
| 지 원 자 격 | 고졸이상학력 |
| 종 교 | 기독교세례자 |
| 모 집 인 원 | 약간명 |
| 원 서 지 원 | 25년 1월부터 |
| 개강및수업 | 3월 첫주 |
| 학 제 | 4년 |
|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 |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릭 워렌과 함께하는 매일의 기적

신간 '목적이 이끄는 365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영적 방향성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발걸음이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저자 릭 워렌 목사와 나싱 더 테스크 연합(FTT) 총괄책임자의 《목적이 이끄는 365일》은 바로 이런 고민에 깊이 있는 통찰과 실천적 지혜를 제공한다. 40년 이상의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돌보며 깨달은 영적 지혜를 365일의 목표로 풀어낸 것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제 아버자에게 낚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과이자 삶의 기쁨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최소 30분은 낚시터에 가셨다. 비록 제가 한 마리로 잡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능숙한 낚시 기술을 관찰하면서, 저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낚시바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일찍이 터득했다. 물속에 그저 낚시줄만 던진다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

다. 반드시 미끼를 걸어야 한다! 노련한 낚시꾼은 물고기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미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낚시꾼이 물고기 종류에 맞는 미끼를 고르듯, 사탄도 우리를 유혹할 맞춤형 미끼를 던진다. 사탄은 무엇이 우리 관심을 끄는지 정확히 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욕구나 마음 깊은 곳의 열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사고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영원히 지속될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깊은 시련의 순간에서야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야 우리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인정, 물질과 권력을 좇느라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렸음을 깨닫게 된다. 위기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 각성제다. 지금 바로 멈춰 서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생각해볼 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

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벧전 4:19).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시길 바란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며, 상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얻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목적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의 연합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이다. 고린도후서 12장 8-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운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열왕기상은 다윗의 마지막 부분과 솔로몬의 이야기와 분열 왕국 초기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의 주인공과 같다. 사무엘상이 사울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사무엘상이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전건축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의 지혜의 최고점으로 성전 건축이 나온다. 성전건축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성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잘 살펴보면 좋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번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아합의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 이들은 열왕기상을 매우 풍성하게 해준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 대표적인 시기이다. 성경에는 모세 때와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이 나온다.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나왔다. 정석환 '열왕기상'



성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공동체를 이루리"는 뜻과 같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에게 공유지 약탈을 통해 소수가 독점한 이익을 돌려주는 체제 전환 의식에서 비롯한다. 한마디로 성령, 그것은 나보다 더 큰 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아를 대가로 만드는 일로 여겨도 좋겠다. 우리의 스승 예수, 제 뜻 버려 하늘 뜻 구한 그분을 옮겨 보고 믿고 그분처럼 되려고 애쓰는 성화의 때이기도 하다. 성서는 세상과 다른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비 오는 곳은날 고급 승용차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에 젖은 몸으로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본문의 뜻일 것이다. 이렇듯 신앙은 가치의 전도를 의미한다. 이를 준비하며 사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정배 '실패한 제자들, 그 이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다. 당신은 신학자다. 좋은 신학자가 되라. 몇 가지 기본적 정의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지만, 아직 신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냥 성경에만 충실하면 안 되는 걸까? 성경과 신학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일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두 핵심 인물의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담과 예수님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바다와 하늘, 땅을 채우시는 장면을 본다. 창조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한 방법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예를 들면 산, 일몰, 별새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일을 이어받아 계속하라고 명하신다. 제 월킨 & J.T. 잉글리시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신간

교회란 무엇인가?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는 좋은 씨앗이 2016년부터 출판을 시작한 기독교 도서 시리즈로 신앙의 기본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신학적 깊이와 실천적 교훈을 결합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하나씩 다루어 왔다. 본 도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저자 김덕중 목사(동인교회 담임)는 이 책에서 교회를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신앙 공동체로 설명하며,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질문에 성경적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 김덕중 목사는 오랜 목회 경험과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며, 성도들이 교회를 특정 공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저자는 책 속에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건물이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자 성전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룬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동양의학학을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파서

침을 맞으려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은 놔두고 영풍한 곳에 침을 놓는 것처럼 보인다. 체했다는데 손가락에 침을 놓는다. 두통이 있다는데 등에 침을 놓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지고 두통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전혀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정말 온 힘을 다해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 된 것을 지키기란 저절로 되지 않고 온갖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미래를 설계한 14년의 여정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변방에서 출발해 현재는 자율주행 AI와 에너지 사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일론 머스크가 철저한 비전을 바탕으로 긴 여정을 계획한 덕분이다. 머스크는 배터리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것을 내다봤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저렴하고 대중적인 전기를 출시할 준비를 했다.



테슬라의 첫 제품은 고가의 럭셔리 스포츠카 로드스터였다. 이는 배터리 비용이 여전히 높았던 시기였던 만큼 수익을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후 머스크는 배터리 가격 하락과 함께 대중적인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7년 모델 3의 양산에 이르기까지 14년간 숏한 위기를 넘기며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책 일론 머스크 볼트3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를 넘어 AI와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해온 여정을 조명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강화를 위해 대규모 AI 모델과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동시에 에너지 사업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장치부터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며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제조를 넘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했다.

책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데" 목표를 그치지 않고, 제품과 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추구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배터리와 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이유, 초기 제품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장기적 계획 아래 생산된 것인지, 테슬라만의 독창적 방식과 그 의미를 상세히 다룬다.

테슬라의 성공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배터리와 AI, 에너지 사업을 테슬라의 핵심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주산업이라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책은 테슬라의 '마스터플랜' 완성 과정과 함께 머스크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과 그의 비전을 살펴본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쌍문내산교회)

매일묵상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유다서 1: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어떤 의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위험한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은 많은 곤란이 따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헛발질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미끄러운 길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시 73:2)고 자주 외쳐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강건하여 넘어지지 않고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포장이 잘된 길에서도 곧잘 비틀거리며 아주 평탄한 길에서도 금방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약한 무릎이 비틀거리라는 몸무게를 잘 받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에도 걸려 넘어지고 조약돌에도 걸려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조심조심하며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라면, 매일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죄짓기에 빠르며, 위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고, 또 걸핏하면 낙심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



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애

쓰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원수들은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전

혀 생각지도 않을 때 뛰어나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만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약함을 깊이 의식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며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지옥이 힘을 합쳐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에 계신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찰스 스펀턴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 새 새롭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9)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진실한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 앞에서 불완전한 의는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범을 충족시키는 것 대신에 규범에 미달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공정한 행위나 재판관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재판관에게는 오직 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의입니다. 법은 재판관의 규범입니다. 만일 재판관이 죄로 성립하는 것을 은폐하고 용서해 준다면, 그럼으로써 사실상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재판관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잘못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없는 사람을 결코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칭의의 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칭의 선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도 또 다른 칭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그 사람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칭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죄가 없고 결백하다고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상태에 있고 생명을 상으로 얻기에 합당할 만큼 완전히 의롭다고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보증인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책을 짊어지신 후에 고난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면될 수 없으셨고 순종을 하시기 전까지는 상을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사면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자격으로 사면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면 안에서 사면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순종에 대한 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자격으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상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신 것은 두 가지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대신 짊어지셨던 죄책으로부터 놓임받으셨다는 것과, 우리 대신 순종하신 일에 대한 상으로 승귀(乘歸)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믿는 즉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런 의롭다하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등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야 할 어떤 의무도 없었고, 사람의 법 아래 굴복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며, 어떤 상태로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그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율법 아래 처하기로 책임을 맡으셨고, 순종하고 고난받으시기로 책임을 맡으셨습

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로 책임 맡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실제로 행해진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실행되기 한참 전에도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실행된 것처럼 행동하시며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순종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증인 또는 대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행위는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중심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없이 큰 어려움을 수반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시험하는 가장 중대한 시금석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입증하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경외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는 그 순종에 수반하는 어려움만큼이나 위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까닭은 주로 이런 순종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획득한 유일한 순종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구원의 공로가 되는 순종 행위를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일은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에 걸쳐 한 순간도 빠짐없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화목을 이루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그렇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한히 존귀하기 때문이요, 동시에 그런 순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자원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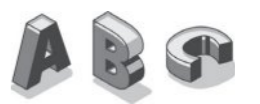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19:105-106 NIV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I have taken an oath and confirmed it, that I will follow your righteous laws.

- oath: 맹세, 서약, 선언
- confirm: 확증(確證)하다
- follow: (종고·지시 등을) 따르다, 따라 하다
- righteous law: 의로운 법

시편 119:105-106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송태훈 칼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답한 여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령 에스더



송태훈 목사

히브리 말로 '하닷사'로 불려진 에스더는 미모가 매우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처녀였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 아비하일의 딸로 알려진 그녀는 조실부모한 천혜의 고아여서, 사촌오빠 모르드개가 딸처럼 양육했다. 주전 6세기 무렵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그 속에 포함되었다(에 2:5-7).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그의 치세 3년에 나라의 부함과 왕위의 확립함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향연을 베풀었다. 향연 제7일 왕은 어린 내시에게 명하여 수차례 왕비 와스디를

자신의 향연 장에 불렀다. 품위있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만백성과 초청된 방백들에게 보이려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시간에 열 뜰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던 와스디는 왕명을 거역하고 향연 장에 나오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더욱 분노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황실의 법률과 규례에 능통한 일곱 방백 중 하나인 므무간의 의견에 따라 왕후 와스디를 즉시 폐하고, 새 왕비를 간택하도록 지시했다(에 1:21, 2:2-4).

왕의 치세 7년 10월에 왕비 와스디를 대신하여 가난한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비로 피택됐다(에 2:16, 17). 그녀는 국가적으로 복잡다단한 때에 왕비가 되므로, 식민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페르시아 제국의 내외적 혼란이 식민지 백성 에스더를 평화롭게 왕비로 세우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에스더가 왕비된 지 5년 후에 216, 37) 아가 사람 총리 하만은 자기 앞에 꼴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개를 비롯하여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계획했다.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즉 당시 페르시아 국고의 약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뇌물을 왕에게 바쳤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네의 율법과 풍속만을 고수한다고 왕에게 참소했다. 하만의 말을 들은 페르시아 왕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한날에 학살하도록 승낙하므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각 도에 발송했다(에 3장).

모르드개는 그런 위급한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며 유대 민족을 하만의 마수에서 지킬 것을 부탁했다. 당시 황실의 법규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아니한 자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만

약 그같은 출입 법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에스더는 난색을 표했다. 그때는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넘는 시점이었다.

모르드개는 그런 에스더에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선민들을 구원하시겠지만, 에스더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앙의 사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 앞에 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마침내 그녀는 삼촌 모르드개의 설득으로 이스라엘 동족 모두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유대 백성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만나기를 청했다. 죽기를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는 그녀를 기쁘게 맞아주므로 생명이 보존됐다.

에스더는 비상한 신중성과 기지로 하

만 총리의 음모에 대해서 왕의 주의를 끄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녀 마련한 3일간의 연회 석상에서 기분이 매우 상쾌해진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호언했다. 자신의 생명과 동족 생명의 위급함을 왕에게 알리고, 함께 참석하고 있던 하만이 사악한 주모자라고 눈물로 읍소하며 지적했다.

사태는 급변하여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높이 50규빗의 십자가형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됐다. 왕의 반지로 인쳐서 전달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각 도에 내려 유대인 스스로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했다. 유대인의 학살 예정일인 12월 13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됐고,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됐다(에 5:1-8:17).

하나님께서 언약한 한 여자와 믿음의

사람 모르드개를 도구로 삼아 이방의 사지(死地)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부림절'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기리며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명의 사람들에게 높은 직위를 부여하거나,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자로 봉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생명을 모두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령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능한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령장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림절 명령 때문이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자신을 보냈는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높은 직위나 위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사회 속에 남용하거나, 악을 저지르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말씀

권혁승 칼럼

이스라엘의 '쉐마' 신앙교육(8)



권혁승 박사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9) '쉐마'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관심으로, '쉐마' 자체가 전체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는 구분 없이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개인은 단독적이지 아니라 '공동체적 개인'인 셈이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질문하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대답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집 문설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주조

트'는 '메주자'의 복수형이다. 그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저다를' 의미하는 아카디아어 '나자주'와 연관시켜 '저 있는 것'을 어원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메주자'는 집의 문을 세워주는 문기둥을 의미한다.

'바깥문'에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너의 문들/입구들'(your gates/entrances)이다. 여기에서의 문이나 입구는 집의 문이나 입구를 의미하기보다는 성의 문이나 입구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에 개인이 거주하는 각 집에는 따로 된 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성문은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이곳 성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성문은 단지 성안으로 들어오는 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붕을 갖춘 수 있는 긴 의자와 같은 시설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문에 기록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집 문에 종교적 성격의 문구를 기록하여 부착하는 관습은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사회에 널리 시행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십계명이 기록된 돌을 집 입구 근처에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다.

후대에 이르러 '문설주'를 의미하는 '메주자'는 이스라엘에서 집 문설주에 부착하는 조그만 양피지를 의미하는 전문용어가 되었다.

이 양피지에는 '쉐마' 본문이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서 문설주에 부착시켰다. 나중에는 이 양피지를 넣는 통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메주자'는 '쉐마' 내용이 담겨 있는 통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메주자'를 부착하는 위치는 들어가는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의 문설주다. 이렇게 각 집의 문설주에 '쉐마'를 기록하여 부착시킨 것은,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신앙교육의 일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 곧 성문에 기록하여 두라는 '쉐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공동체와 민족공동체 전체에게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말씀과 신앙의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쉐마'는 가정을 넘어 민족에게로 이어지는 신앙 선교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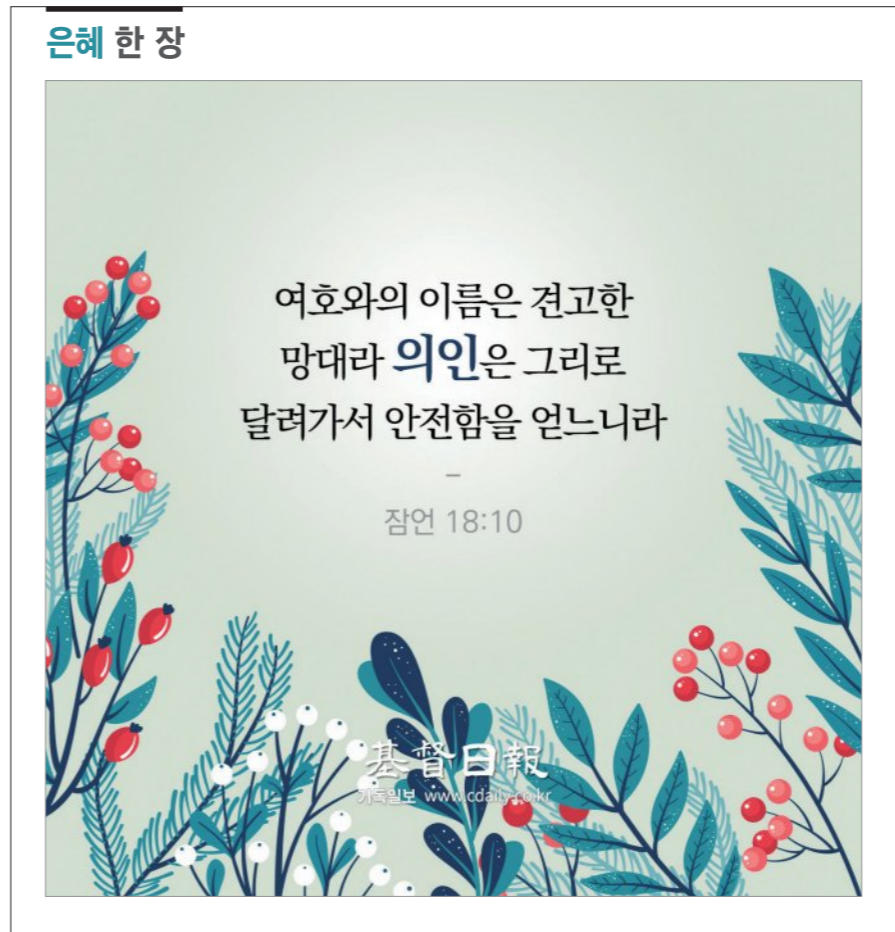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민족을 넘어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나갈 때 더 큰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런 주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예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정해진 시각에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에 펌프질을 할 사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왜 그런 보잘것없고 천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작곡가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결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봉사의 일이라면 가장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Salvation by Faith)(4)

그 후부터는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롬8:6참조).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대단히 기쁜 소식, 만민에게 주어질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이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 사라”(사 55:1).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사 1:18). 또는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7. 아무 반대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설교해야 하는 일을 손쉽게 잊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이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혀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어라고 하십니까? “이 닭이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닭아 돌 자가 없으니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전 3: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우리 설교의 기본이요, 또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으로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각 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고 반대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설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제외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이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이 그 분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마 9:13참조)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외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요하고 유식하고 평안이 높은 도덕가를 제외할 것입니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왜곡하여 멸망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 스스로가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그 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8.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리가 곧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똑똑히 밝혀 말합니다(엡 2:8).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교리를 오늘날처럼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가 주고 있는 미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천주교회의 그릇된 점을 하나, 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그 근본을 공격한 것으로 이 교리가 성립될 때 천주교회의 모든 교리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야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 기독교의 강한 반석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 교리가 교황을 여러 왕국에서 처음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교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 외에 이 땅 위에 흥수처럼 퍼지고 있는 부도덕을 시정할 교리는 없습니다. 아주 깊은 대양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언으로 우리를 어떤 악한 습관에서 개혁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자만의 파도는 멈출 것입니다. 이 교리 외에는 어느 것도 부끄러움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자기를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을 자기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고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시작하십시오.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과연 그들이 우리 눈에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며, 마치 지옥의 말바닥이 천당 꼭대기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도 같이 영생과 구원의 자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하나님이시여,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9.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그 반대자들은 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리를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은 땅과 지옥을 동원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이 신앙이 자기들 왕국의 기초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교리가 선포될 때부터 전력을 다해 온갖 거짓과 비방을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와 일꾼인 마틴 루터를 위



협했던 것입니다. 이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으로서 그는 기만하고 강하게 무장한 그 장사를 분노케 하였으며, 그 장사는 결국 손에 갈대 하나를 쥐고 나오는 한 어린이에게 의해 정지되고 무시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어린이가 분명히 자기를 능가하리라는 것을 알자 그 아이를 짓밟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힘은 가장 강해지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어린이와 같이 전진하십시오. 주의 오른 팔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린이와 같이 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어떤 강한 자도 당신을 당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를 이기고, 정복하며, 그를 능가하여 마침내는 짓밟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대장 밑에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마침내는 모든 원수들을 다 넘어뜨리고 사망이 승리(생명) 안에 삼키워질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신에게 은혜와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전능이 영원히 있을 지어다. 아멘.
창골산 봉독사

향유욕합

가진 만큼 자비를

용서는 진정한
큰 것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기 전까지
영생을 받았음을 확실하기 전까지
인간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
내 안에 천국과 영생이 깃들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이야기하늘나라

썬다 쌍의 열망

인도의 썬다 쌍은 시크교도였으나, 그는 시크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참 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는 결심을 한 썬다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께서 살아 계신다면 저를 만나 주소서”
그때 라호라로 가는 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다음 열차는 내일 아침 5시 급행 열차였습니다.
“신이여! 만일 다음날 아침 5시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썬다는 목욕을 하고는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급행



열차 시간까지는 아직 7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는 밤 새워 신을 찾아 간구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양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썬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니라.”
“신이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썬다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닷컴 | RED COMPASS 선교회 제공


세이브더칠드런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기록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아동은 최소 147명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이야기 곁에 함께해 주세요.

▲ 바로가기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

예배 음악의 멘토

시편의 인물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 — “다윗이 레위인의 지도자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하였다. (대상 15:16)”



김영국 목사

이 노래들은 악기로 반주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위한 음악인들 가운데는 심벌즈를 연주하고(대상 15:19; 16:5) 다수의 시편을 쓴(시 50:73-83) 베냐민의 아들 아삽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또 다른 중요한 예배 인도자 그룹으로 열두 개의 시편이 그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시 42-49; 84-85; 87-88). 이성전 찬양대원들과 음악인들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 그들 가운데 찬양과 경배의 정신을 증진시켰습니다.

성전 음악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임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였으며 그들의 기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수세기 후에 128명의 아삽의 자손들이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 음악인의 혈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거의 오백 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은 규칙과 외관 모두에 매우 관심

을 기울였습니다. 음악인 각자에게 임무가 할당되었으며 각자 고유의 긴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순결을 상징하기 위하여 신체적 외관으로써 세마포 걸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대상 15:27). 명백히 그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때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성전 기초의 재건의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위대한 순간에 사람들은 악기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음악이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드릴 예배를 드높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큐티를 위해서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나 CCM 노래집을 갖고 홀로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예배를 인도한다면 성전 음악인들의 근면한 준비와 연습을 묵상하시고 하나

남께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축하하십시오.

다윗 —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예뻐움을 입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제를 매어 오니라.” (삼후 6:14-15)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의 임기를 봉사하였고 유용한 기구들을 발명하고 매우 광범위한 주제의 논문과 조약 협정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묘비에는 무엇보다도 버지니아 대학의 창설자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했을까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용맹스러운 십 대의 젊은 소년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을까요?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야니엔 역사상 가장 장제로웠던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기억되기를 원했

을까요?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주장은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예배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감독하고 지휘하였습니다. 그것은 크고 요란스러운 음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와 외침으로 돋보인 즐겁고 기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장 놀랄만한 광경은 왕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삼하 6:14) 뛰며 춤을 추며 행렬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감정의 표출은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열정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찬미들은 승리와 슬픔과 혼돈과 억압과 만족과 경이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축하하는 찬양을 합니다.

시편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므로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열정적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삼상 13:14)으로 불리도록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 비결은 다음과 같은 그의 기도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다”(시 86:11-12).

오늘 우리의 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각자 어떻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면 어떻까요?

전심으로 예배하며 진실하게 살고 우리의 하나님께 변함없고 끊임없는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자를 위한 두려움(2)



이선중 지휘자

〈흠모(나바트)와 활기(나하르)〉

흠모와 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바트와 나하르는 노래 가사의 시적 발음이 눈부시게 살아 화려한 광채를 띠고 있다. 잠시 전에 있었던 어떤 수치와 당황과 모욕과 혼란은 전혀 사라지고 없고 오직 영원한 평강으로 가득차 빛나고 있다. 그 어떤 비난과 어두움과 나쁜 두려움은 온데 간데 없다.

큰 두려움, 오직 그들의 얼굴과 몸은 알 수 없는 총탄으로 눈부신 내적 열기인 희열과 외적 열기인 광채로 큰 두려움으로 가득채워져 있다 한다.

흠모와 활기(광채)가 지시하는 고조된 상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나바트 나하르 단어의 원석이 가진 감수성은 큰 두려움이다.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현재적 임재다.

흠모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존경인 두려움이요 광채는 하나님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두 두려움이 만나 큰 두려움이 일어난다.

(두려움의 결핍)

어떻게 큰 두려움이 모자라 나쁜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는가?

인간은 본디 그 존재 형편이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기에 결핍과 그 결핍에 대한 소외의식에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드는 여러서는 행동을 한다. 결핍은 밖에서 타자가 채우지 않으면 자신 안에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채우려 한다. 두려움은 원래 혼수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일, 교회에서 찬양한 녹음을 월요일 편집하는 녹취원에는 두 종류의 사운드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 사운드이고 다른 하나는 소음이다. 편집활동의 대부분은 주 사운드를 더 잘 드러나게 하고 소음을 지우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어떤 때는 주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 볼륨을 키우면 소음만 크게 들린다. 이때 주 사운드 없는 소음만의 세계에 잠시 있게 된다. 그 세계는 아주 불편하고 가혹하게 처참하다. 이런 사운드는 곧 지워진다.

우리 영혼에 두 종류의 사운드가 있다. 오직 바로 그 하나님인 주 사운드가 작

동하지 않으면 보잘 것 없는 주변 소음만이 드러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소음이라도 크게 들려 한다. 그게 대체로 시정에서 보이는 인간이다.

형편에 의해 자신을 유지하는 존재인 인간은 큰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음인 주변적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며 들어온 소음이 마치 주 사운드인줄 안다. 비어있는 곳에 쓰레기만 잔뜩 채워진 공허가 자신의 처지인줄 알며 마치 그런 형편에 자신이 처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한다.

(형편 주머니)

비어있는 존재 형편 주머니를 소음으로 채우는 자와 흠모와 광채로 채우는 자가 있다.

큰 두려움을 지닌 인생은 얼마나 볼륨이 있는가? 큰 두려움이 없는 존재 형편은 소음만이 지배하는 핼과리 환경에 속고 살고 있다.

꿈은 큰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요, 주시는 자의 광채가 멈추지 않는 총탄에서 온다. 아무 것도 없는데 큰 두려움과 광채와 총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망과 기다림과 고난과 걱정적인 내적 분규가 고조되고 치열해질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성서는 갈급한 영혼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간다고 보고한다. 큰 두려움에는 모든 것이 평정된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보니(나바트) 주의 개입하심과 내근거리에 나를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목격하고 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덮쳐온다(나하르).

말할 것도 없이 찬양하는 자는 소음 같은 무서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인 두려움은 그 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분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미련이 많이 그렇다. 오직 그 분만이 작동하려면 그 분 외에는 세상 순위를 뒤로 보내야 한다.

찬양자의 선택은 오직 두려움만이 그가 선택하고 찬양하는 그 현재에 가장 큰 아티클레이션이어야 한다. 지휘자에게 두려움이란 그 크신 분을 감히 알고 누리려는 영적 감수성이다.

오토가 만난 누미노제는 사물 시나고 그의 할때는 초라한 목상 소리였다. 하

나눔은 흠모하는이에게 광채로 찾아 가신다.

찬양한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마음전파상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Dream, Universe & Love

2024. 10. 25.(금) — 2025. 2. 28.(금)

송파구 (사)잠실관광특구협의회 LOTTE WORLD TOWER

꽃섬출애굽교회, 2024 크리스마스 난빛음악제 개최

꽃섬출애굽교회(담임 오치용 목사)가 주최하고 마포교구협의회 상암교동협의회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후원하는 '2024 크리스마스 난빛음악제'가 30일 오후 마포구 에스플렉스 센터 2층 다목적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오은정 부사장(테트라팩, 주한 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치용 목사가 개회사를 전했다.

오목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고 엄마와 나의 대화로 인생이 시작되었다. 엄마의 모태에서 우리가 시작될 때 엄마와 나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이 일은 지구라는 녹색공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 모두에게도 주어진다. 우리는 지구의 품에서 시작되며 지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와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살 때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나 이 사이를 틈내는 마음의 썩어가고 있고 우리 인생은 이 썩어가는 의해서로 마음이 나뉘고 가정, 사회, 나라도 나뉘며 마음 아픈 일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남북분단을 겪은 지



꽃섬출애굽교회가 주최하고 마포교구협의회 상암교동협의회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후원하는 '2024 크리스마스 난빛음악제'가 마포구 에스플렉스 센터 2층 다목적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최승연 기자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인류 속에 주어진 하늘의 사랑은 뜨거운 불과 같아서 마음의 썩음을 소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쇼케이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만나게 될텐데 <뮤지컬 난빛나라

>는 하나님께서 자에게 꽃섬 난지도에서 영감을 받으며 2011년부터 쓰게 하고 완성하게 하신 9부작의 작품 <꽃섬판타지>, <탄야의 첫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뮤지컬 공연 이후 차례차례 어



오치용 목사가 개회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김기덕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뮤지컬 난빛나라가 공연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떤 형태로 공연이 될지 기대 속에 기도를 드릴 뿐이다. 이 일의 초연을 이루게 지원한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마포구청장님, 김기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 외 난빛음악제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분에게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 평화가 어디든 가득하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기덕 의원(서울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 중의 빛인 난빛은 이름이 아름답다. 정주영 회장이 난지도를 옮기

겠다고 과거에 서울시와 협상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승소하여 난지도는 옮겨가지 않았다. 난지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생태적 요소를 가진 곳으로 탈바꿈이 되었으며 이를 지키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 속의 난지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난빛음악제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탄을 약 25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이렇게 열리는 것은 다른 축제와 다르게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

리 사회에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난지도 알대가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앞으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난지도가 난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서울 시민에게 복음도 전파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이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뮤지컬 난빛나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오전 |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06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 00 성지가 좋다(459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 드로아에서 잇소로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
| |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 00 생명의 양식 정음(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07회) | 00 생방송 명설교 새벽기도회 40 2024 한소망교회 감사특집 1회 |
| |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 3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 20 주만찬(71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59회) |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7회) 50 노변담방(917회) |
| | 8:00 20 신앙예배 30 CTS한신예배Praise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2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50 체인티 더 월드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 00 찬양예배 주님께 말하는 시간(1472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186회) 열람기서 41강 | 00 비전메시지 - 청문교회 이필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백세특강 | 5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앙의 세계로 오십시오 | 10 새롬게하소서(11215회)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 1부 | 00 고품격 크리스마스 토크쇼 : 차복(47회) 밤하늘과 별 이야기, 별이 빛나는 밤에 30 성지가 좋다(459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 드로아에서 잇소로 |
| | 10: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 20 병하의 일과 - 야외수업 4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 00 CBS NEWS 10 20 풀리한 내팍(5회) | 00 내 삶의 행복(132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성령의 치유(1008회) |
| | 11:00 40 [워킹온다바이블]성령의 땅 50 [생방송] CTS 뉴스 | 0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중현 총장 4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 20 성지가족(27회) | 00 소문난 성경교실(383회) 김예환 목사 두 번째 제 9강- 성경 365 : 시가서(2)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52회)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
| 오후 |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교회) | 00 김신대 화요채플 30 TV강단 포이에마예수(신유인) | 20 말씀의 창 -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문교회 이규호 목사 |
| |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3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 00 울포원(585회) |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
| |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2024 다니엘 기도회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롬게하소서(10924회) 작곡가 용감한 형제 1부 |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89회)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
| |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 00 [말씀] 김한오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 20 CBS 성서학당 (신유인)(3126회) 창세기 35장 | 00 2024 한소망교회 감사특집 2회 장정아 배우 |
| | 16:00 30 생명의 말씀-이재희 목사(분당햇빛교회) | 00 세계태미가행 40 말씀의 생터 충만교회 임다윗 목사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교회개혁 길라잡이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인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32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3회)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 2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교회 박충권 목사 5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 3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방인온누리교회) |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본영 |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 | 18:00 00 생명의 말씀-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30 Miracle Moment 40 아주 특별한 찬양 | 20 아베스의 기도 50 라이브즈 헤리티지 | 10 휴먼넥트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영호) | 00 말씀의 창 - 울리찌교회 서대진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
| 저녁 | 19:00 30 사장님은 선교사 |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막 |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 00 이영훈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34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 00 비전메시지 -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
| |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2024 다니엘 기도회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병하의 일과 - 야외수업 4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 0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인천제일(이제일) |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27회) 10 복음강단 - 오순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
| | 21:00 00 CTS 뉴스 30 바이블 프로젝트 40 내가 매일 기쁘게 | 50 GOODTV 뉴스 |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186회) 열람기서 41강 50 살롬 팔통(38회) |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3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380회) 김예환 목사 두 번째 제 6강- 성경 365 : 왕국 예언서 (2)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19회 |
| | 22:00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 10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집 담당하고 위대하게 |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선한목자교회- |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11215회)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 1부 |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452회 20 소문난 성경교실(380회) 김예환 목사 두 번째 제 6강- 성경 365 : 왕국 예언서 (2)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19회 |
| | 23:00 00 설레이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 10 2024 다니엘 기도회 | 00 카일 아이들만의 로마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 10 풀리한 내팍(5회)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186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
| |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 10 말씀의 생터 윗목교회 안호성 목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병주교회) | 10 성지가족(27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29회) | 00 한소망교회 헌법의 기도회(41회)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
| |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40 GOODTV 시네마 마태복음 1부 |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생물교회) |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257회) 4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 00 믿음의 리액션(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
| | 2:00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 10 GOODTV 특별간증 |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 30 TV강단 승리(박규성)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 3:00 00 다시보는[CTSWEK] 50 #클립CCM | 10 다큐프라임 | 00 [Global Sermon] Kyle Kileman's Romans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 00 울포원(181회) | 00 만수(13회) |
|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서임중 목사 3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185회) 요한계시록 43강 50 CBS 교회소식(975회) |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429회)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 |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픈

인천공항 제2의 개항,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상

인천공항 4단계 Grand Open 2024년 11월 29일

